

2025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4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5
가. 대형 프로젝트의 재정 지출 효율화	5
나. 비석유 부문 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6
다. 국가 인프라 확충 및 법·제도 개선	7
라. 글로벌 입지 제고를 위한 다방면 노력	8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0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0
2. 시장 분석	22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22
나. 교역	24
다. 투자	28
라. 프로젝트	34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39
가. 교역	39
나. 투자 진출	43
다. 협력 유망 분야	45
III. 진출전략	47
1. PEST 분석	47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48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49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55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57
첨부 3. '25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59
첨부 4.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60

1. 개요

가. 시장 전망

'25년 경제 전망 : 상승

- IMF는 '24년 9월 발간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25년 경제성장률을 4.7%로 예측하여 '23년(-0.8%)과 '24년(1.7%) 대비 비교적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사우디 감산 정책 완화 및 비석유 부문 성장이 경제성장률 견인 전망

- 유가 하락으로 재정 적자 상태이나, 부채 비율 낮고 재정 건전성 우수
-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 거시지표 양호하며 중동 갈등은 사우디 경제에 영향 미미
- 대형 사업 지출 조정, 법·제도 개선, 디지털화, 여성 노동 참여 등 긍정 요소 증가
- 국부펀드 활동의 불투명성, 탄소 중립 실현의 어려움, 외적 요인 등은 리스크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구	백만 명	30.2	30.0	31.5	30.8	32.2	32.8	33.5	34.2
명목GDP	십억 달러	846.58	838.57	734.27	874	1,109	1,068	1,096	1,150
1인당 명목GDP	달러	25,340	24,510	20,970	25,460	34,454	32,530	32,728	33,675
실질성장률	%	2.8	0.8	-4.3	3.9	7.5	-0.8	1.7	4.7
실업률	%	6.0	5.6	7.7	6.7	5.6	4.9	n/a	n/a
소비자물가상승률	%	2.5	-2.1	3.4	3.1	2.5	2.3	1.9	2.0
재정수지(GDP대비)	%	-5.9	-4.4	-11.2	-2.3	2.5	-2.0	-3.3	-2.9
총수출	십억 달러	294.4	261.6	173.8	276.2	411.2	322.5	299.9	315.8
(對韓 수출)	백만 달러	26,336	21,841	15,980	24,271	41,640	32,763	n/a	n/a
총수입	십억 달러	137.1	153.2	125.9	139.7	175.9	195.6	213.5	239
(對韓 수입)	백만 달러	3,952	3,697	3,302	3,325	4,865	5,325	n/a	n/a
무역수지	십억 달러	157.3	108.4	35.9	123.3	235.3	126.9	86.5	76.9
경상수지	"	72	38.2	-22.8	44.3	151.5	34.1	-0.6	-12.3
환율(연평균)	SAR/US\$	3.75	3.75	3.75	3.75	3.75	3.75	3.75	3.75
해외직접투자	십억 달러	23	13	5.4	27	16.1	15.2	14.6	14.2
외국인직접투자	십억 달러	42.5	45.6	1.6	23.1	28.1	12.3	14.1	17.1

주: 2024년은 추정치, 2025년은 전망치
 자료: IMF('24.7), KITA('24.7)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 정부 재정 수입 감소에 따른 대형 프로젝트의 지출 효율화 노력 강화
- ※ PIF와 NDF 등의 국부펀드를 통한 비석유 부문 투자 확대
- ※ 국가 교통 물류와 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 ※ 외교, 비즈니스, 신산업, 교육 등의 글로벌 입지 제고를 위한 다방면 노력

가. 대형 프로젝트의 재정 지출 효율화

□ 기가 프로젝트 등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추진

- 사우디 정부의 2025년 예산 초안에 의하면 재정 수입 3,162억 달러, 지출 3,432억 달러로 27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사우디 연도별 재정 균형 : ('22) +277억 달러, ('23) -216억 달러, ('24 예상) -315억 달러

** IMF 및 Bloomberg 등이 분석한 사우디의 2024년 균형 재정 유가는 100달러 내외

- 이에 사우디 재무부는 2025년 예산 초안 보고서에서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을 조절하고 집행 효율성을 높ی겠다고 발표하였으며, IMF도 2024년 9월 연례보고서에서 이러한 정부 움직임에 대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 과열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이미 2024년 네옴 사업의 속도 조절이 주요 외신을 통해 알려졌고, 국내외 시공사들은 월드컵 연계 사업 등 지연 리스크가 낮은 사업들 위주로 참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2025년에도 선별적 사업 참여 추세 지속 유력

□ 프로젝트 발주 효율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및 공기 단축

- 대형 프로젝트들이 2030년을 목표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발주처들의 공급망 구축 및 공기 준수에 대한 압박 증가. 그 대안으로 시공사들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는 Early Contractor Involvement (ECI) 형태의 발주로 예산 절감과 발주 효율화 시도
- 해외 기업과 PIF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기술 제휴로 사업 조기 착수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입찰가에 대한 압력은 상승 중. 특히 중국 기업의 참가 비율이 절반이 넘는 전시회들이 많을 정도로 중국 기업의 사우디 진출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여러 정부 사업에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입찰 중
- 리야드시의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Riyadh Infrastructure Projects Center(RIPC)가 2024년 본격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25년에도 프로젝트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예상됨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IR 활동 증가

- 네옴의 경우 2023년 11월과 2024년 2월 런던과 뉴욕에 투자 유치 목적의 사무소 개설, 흥해 프로젝트는 호텔 및 리조트 운영사들과 다수 협약 체결, 리야드 내 도심 개발 사업인 Diriyah는 부동산 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 로드쇼 개최 등 각 프로젝트별 IR 활동 활발
- 사우디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점차 토목공사 단계에서 부동산 개발 단계로 넘어가면서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자 유치에 나설 것

나. 비석유 부문 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 투자펀드 조성 및 개편을 통한 산업화 노력 고도화

- PIF는 설립 초기부터 사우디의 비석유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22년 이래 자동차(CEER), 부동산 개발(New Murabba), 관광(The Rig), 항공(Riyadh Air, King Salman International Airport), 생활(Kayanee), 전기전자(Ala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사 신규 설립 중
 - * PIF는 2017년 이래 다양한 산업군에 95개 사를 설립하여 제조, 서비스, 투자 등 사업 영위
- 최근 설립한 회사들이 그동안 사업 준비 단계 및 일부 기업들과의 물밑 접촉 위주로 활동해 왔지만, 2025년에는 이런 기업들의 활동이 공개적인 파트너 발굴 또는 발주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
- 또한 National Development Fund(NDF) 관리 펀드 중 하나로 그동안 제조업 지원에 특화되었던 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SIDF)는 지원 범위를 에너지, 광업, 물류 등으로 확대하는 중
 - * NDF : SIDF 등 정부 부처 및 금융기관들이 운영하는 펀드들을 총괄 관리하는 펀드 기관

□ 도시화 및 기업 활동 증가 기반 서비스업 발달 가속화

- 리야드는 2030년까지 인구 1천만 명 이상을 목표로 성장 중에 있으며, 최근 외국 기업 진출 및 고용 증가 등으로 인구 유입이 급증. 이에 사무실 및 주택 임차료도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폭등
- 이러한 인구밀도 증가 및 도시화는 생활 편의와 관련된 여러 서비스 산업 발달의 기폭제로 작용. 2025년 사우디 전자상거래 매출 규모는 69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배달, 요식업, 도소매업 등 급성장
- 기업 활동의 증가 역시 정부 민원 서비스의 디지털화, 핀테크 서비스 발달, 컨설팅 서비스 등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

□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글로벌 허브화 추진

-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사우디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가장 추진력 있게 육성하는 산업 중 하나로, 매년 눈에 띄게 성장 중
 - 야외 활동이 편리한 겨울에 개최되는 'Riyadh Season'은 2019년 시작 이래 Boulevard World 테마파크 운영, 음악 공연 등 매년 규모와 구성요소가 진화
 - 2022년 1,500만 달러의 상금으로 시작한 e스포츠 대회 'Gamers8'은 2024년 상금 규모 6천만 달러의 'e스포츠 월드컵'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매년 개최 예정
- 2025년에는 엔터테인먼트 도시로 개발 중인 Qiddiya 내 테마파크인 Six Flags와 워터파크 Aquarabia가 개관 예정이며, Sindalah Island, Red Sea, Sports Boulevard 등의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완공 또는 부분 개관을 앞두고 있음
- 주요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토목 및 건설 단계에서 운영 단계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호텔 및 리조트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또는 솔루션, 엔터테인먼트 시설에 필요한 문화 콘텐츠 확대 중

다. 국가 인프라 확충 및 법·제도 개선

□ 교통 물류 인프라 사업 본격화

- 사우디는 National Strategy for Transport and Logistics(NSTL) 전략에 따라 교통 물류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2030년까지 1조 리얄(SAR)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천억 리얄 투자
- 2024년에는 사우디 교통물류서비스부(MOTLS) 주최로 제1회 글로벌 물류 포럼을 개최하여 산업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10년의 사업 기간에 걸친 리야드 메트로 개통 및 특별물류구역 'SILZ' 관련 업무협약 등의 성과 창출
- 이 외에도 리야드시는 도로 네트워크를 확충하기 위한 4개 사업에 35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발표하였고, Roads General Authority는 젯다-메카 고속도로, 아시르-지잔 고속도로 등의 사업 공고를 진행
- 2025년은 이러한 도로 네트워크 확충 사업은 물론 신설 항공사인 Riyadh Air의 출항, 사우디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Landbridge 고속철 사업 착공, King Salman International Airport와 Abha 등 권역별 공항 확장 사업 발주 본격화 등이 예정된 중요한 한 해

□ 태양력 및 풍력 발전소 발주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사우디는 Vision 2030 전략의 일환으로 Saudi Green Initiative(SGI)라는 야심 찬 환경 보존 전략을 수립하고 ① 206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 ②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③ 향후 수십 년간 100억 그루 나무 심기, ④ 맹그로브, 숲, 사막 등의 자연 생태계 보호 및 복원 등을 추진
-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2030년까지 매년 20GW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추가하여 총 130GW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계획을 모두 이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사우디 전력청(SEC) 산하기관에서 별도 정부기관으로 독립한 사우디 전력조달공사(SPPC)는 2024년에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Round 5 사업으로 총 3.7GW 규모의 태양력 발전소 4개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자 선정이 진행 중이며, 2025년에는 Round 6 사업으로 총 4.5GW 규모의 태양력 및 풍력 발전소 발주를 진행할 예정. 네움의 자회사 Enowa의 1.2GW Gayal 풍력 발전소를 비롯한 풍력 발전 사업도 진행 중

□ 기업 활동 촉진과 투자 유치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사우디 정부는 비즈니스, 인권, 세무회계, 정부 통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제 표준과 Best Practice를 따라가기 위해 빠른 속도로 법률 개정을 진행 중
- 최근 주요 성과로 ① 회사 유형 등의 변화를 반영한 신회사법('23.1월 발효), ② 내부고발자, 증인, 전문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24.2월 통과) ③ 반부패청 역할 강화 법('24.7월), ④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투자 보호를 강화한 투자법 개정('24.8월), ⑤ 고용 형태 및 계약 관계 등을 명확히 한 노동법 개정('24.8월), ⑥ 여러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한 상업법 및 상호명 등록을 간소화한 상호법('24.9월 통과) 등이 있음. 또한 FDI 통계 산출을 위해 IMF 권고 방식을 도입('23.10월)하는 등의 노력도 존재
- 법 개정 및 통과로부터 발효 및 정상적 이행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2025년에도 이미 발표된 법률에 대한 세칙과 가이드라인이 계속 발표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라. 글로벌 입지 제고를 위한 다방면 노력

□ 외교 저변 확대를 통한 세계 정치 강국으로 부상

- 사우디는 최근 수년간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프랑스 등의 경제 강국은 물론 중동·아프리카의 이슬람권 국가들과도 정상 외교 노력을 강화. 2023년 7월 이란이 사우디에 7년 만에 대사관을

재개관하였고 중동 지역 갈등이 심화되기 전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도 검토 중.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하는 등 사우디는 국제무대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급격히 상승시킴

- 사우디 구호기관 KSrelief는 2015년 설립 이래 25억 달러 상당의 1천 건이 넘는 식품, 농업, 수자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가자 지구 및 레바논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 중. 개발도상국 지원 기금인 Saudi Fund for Development(SFD)는 2024년 설립 50주년을 맞이함

□ 글로벌 현안에 대한 주도권 확보 노력

- 사우디 정부는 탄소 중립, AI 등의 글로벌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COP28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업계 리더들과의 교류를 개시하면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
- 또한 사우디는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를 매년 개최하고 World Defense Show, LEAP 등 비교적 신생 전시회를 단기간 내 급격히 성장시킴은 물론, 엑스포와 월드컵을 비롯한 국제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국제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자국 내 MICE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음

□ 우수 노동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 그동안 사우디 정부는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우디 자국민의 공교육 무료 제공과 외국 유학 등 지원
- 최근에는 자국 내 고등교육 커리큘럼 고도화는 물론 국제대회 참가와 수상 사례가 늘고 있음. 공교육에서는 STEM 교육과 외국어 과정이 강화되고 있고 IT 관련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증가 추세
-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인 의무 고용(Saudization)이나 중동지역본부 유치(RHQ) 정책 이행을 위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계속 강구할 예정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정치 : 왕세자 중심의 국정 운영 공고화 및 외교 저변 확대
- ※ 경제 : 안정적 거시경제 지표 바탕으로 비석유 부문 성장 확대
- ※ 산업 : Vision 2030 계획 下 비석유 부문 정부 투자 확대
- ※ 정책 : 투자법 개선 및 Vision 2030 기반 ESG 경영 확립 추진

가. 정치 환경

□ (대내)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혁 정책 추진 중

- 2015년 살만 국왕(Salman bin Abdulaziz Al Saud)은 7대 사우디 국왕으로 즉위한 이후 아들 무함마드 빈 살만(MBS)을 2017년 왕세자, 2022년 총리에 임명
 -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부 장관 역임
 - 이 외 2015년부터 CEDA(Council of Economical and Development Affairs Council)와 2017년부터 CPSA(Council of Political and Security Affairs) 의장직을 수행 중이며, 국내 주요 경제 개발 및 보안 관련 정책을 총괄
 - 이후 반부패청(Nazaha)을 앞세운 부패 척결, 여성 인권 신장 등 사회 개혁 단행
 -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전 연령층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
- 사우디에는 법률 초안을 검토하고 국왕과 각료회의에서 각종 사안들에 대한 권고 권한을 갖춘 슈라 위원회(Shoura Council)가 운영 중이며 최근 위원회 내에 여성 위원들의 대외 활동 증가
 - 2013년 왕령으로 위원회 위원 총 150석 중 최소 20%인 30석을 여성에 할당
 - 2024년 9월 4년 임기로 슈라 위원회가 재구성되었으며, 이 중 19명의 여성 위원이 신규 임명(현재 갱신 포함 여성 위원 총 30명)
 - Fourth Eurasian Women's Forum(러시아, 2024년 9월), G20 Women Parliamentarians(브라질, 2024년 7월) 참가 등 여성 위원의 국제 활동 증가
-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발전 전략인 Vision 2030은 2016년 공개 후 8년 차를 맞이한 시점에서 모든 정부 부처의 정책 및 실적 발표의 근간이 됨. 민간 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결고리를 찾는 등 동력이 유지되는 중
 - CEDA에서 주기적으로 추진 성과를 점검 중이며 전반적으로 2024년 긍정 평가

□ (대외) 글로벌 입지 강화 및 경제 다변화 위한 외교활동 확대

- **(미국) 전략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국방 및 에너지 협력 지속**
 - 2022년 7월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과 함께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방산 및 보안, 우주항공, 지역 갈등 완화 등에 대한 협력을 다짐했으나 이후 사우디의 감산 정책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기도 함
 - 다만 지역 갈등 해결책 협의 등을 위해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2024년 4월과 10월에 사우디를 방문했고 양국 간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전략적 관계 유지
- **(중국) 최대 교역 관계에서 정치적·경제적 협업 관계로 발전**
 - 2024년 9월 중국 리커창 총리가 사우디를 방문하여 제4차 사우디-중국 고위급 공동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빈 살만 왕세자와 회동
 -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2년 12월 사우디를 방문한 이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사우디와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관계 강화 중
 - 2024년 사우디 공립학교에서 175명의 교사들이 시범적으로 중국어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2029년까지 중국어 교육 확대 등 다양한 협력 진행 예정
- **(일본) 사우디와의 청정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 협력 기대**
 - 2016년 양국 간 'Saudi-Japan Vision 2030' 협력 방안을 수립한 이후 2023년 7월 기시다 총리의 사우디 방문, 2024년 5월 화상회담 개최 등 교류 이어감
 - 최근 수소, 암모니아 등 청정에너지와 광물자원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룸
- **(중동) 중동 사태 해결 및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 사우디 외교장관 Prince Faisal bin Farhan은 2024년 9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갈등과 관련하여 팔레스타인의 독립 국가를 인정하는 '2국가 해법' 실현을 위한 Global Alliance for Two-State Solution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발표
 - 또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전제조건 역시 팔레스타인 독립임을 강조
 - 전 국민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지 분위기가 강하며 KSRelief를 통해 구호 활동 활발
 - 이란과는 2023년 6월 주사우디 이란 대사관 재개관에 이어 2024년 5월 이란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의 헬기 추락 사망에 대한 조의 표명, 2024년 10월에는 사우디-이란 홍해 합동 군사 훈련 소식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하면서 관계 정상화 가시화
- **(BRICS) 경제협력체 공식 가입은 모호, 개별국과는 협력 확연히 강화**
 - 일부 언론에서 2024년 1월부 사우디의 BRICS 정회원국 가입을 보도한 가운데, 사우디 국영통신사 SPA는 사우디 외무장관이 2024년 10월 BRICS+ 회의에 '초청받은 국가(invited country to join the group)' 자격으로 참가했다고 밝힘
 - 한편 러시아, 인도 등 국가와는 2024년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관계 강화 중

나. 경제 환경

□ 경제성장률 - 비석유 부문의 견조한 성장을 통해 감산 상황에서도 성장률 확대

- IMF, 2025년 사우디 경제성장률 4.6%로 전망

- IMF, 2024년 10월 전망치로 ('24년) 1.5% → ('25년) 4.6% 경제 성장 전망
- 2023년에는 석유 감산 등의 영향으로 -0.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민간 소비와 비석유 부문 투자에 힘입어 비석유 부문은 3.8%의 성장률을 기록
- 2023년 실질 GDP 기준 비석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달성하였으며, 향후에도 비석유 부문이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 예상

〈2021~2025년 사우디 경제성장률 동향〉

구분	2021	2022	2023	2024e	2025f
경제성장률(%)	3.9	7.5	-0.8	1.5	4.6

주: 2024년은 추정치, 2025년은 전망치
 자료: IMF('24.10)

□ 산업생산지수 - 제조업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

- 석유 생산 감소세를 제조업이 상쇄하며 전년 동기 대비 1% 상승('24년 8월)

- 특히 가구(+18.8%), 제지류(+14.5%), 식품(12.9%), 전기제품(12.3%)의 상승폭 높음

〈최근 2년 사우디 산업생산지수〉

주요 활동	산업생산지수			증감률(%)	
	'23년 8월	'24년 7월	'24년 8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석유 활동	98.4	97.6	97.0	-1.4	-0.7
비석유 활동	120.6	128.3	129.1	7.0	0.6

주: IPI August 2024
 자료: GASTAT('24.10)

□ 재정수지 - 석유 수입 감소 상황 속 안정적인 재정적자 유지

- 대규모 프로젝트의 확대로 재정 적자는 당분간 지속 예정

- 고유가에 힘입어 2022년 9년 만에 재정 흑자 달성 이후 2023년 적자 재전환
- OPEC+의 자발적인 감산에 따른 석유 수입 감소로 적자폭 확대

- 2024년에도 감산 정책이 지속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의 확대로 전년 대비 재정 적자 확대
- 2025년에는 석유 생산 회복 및 경제 다각화 전략으로 재정 적자폭 감소 전망

〈2021~2025년 사우디 재정수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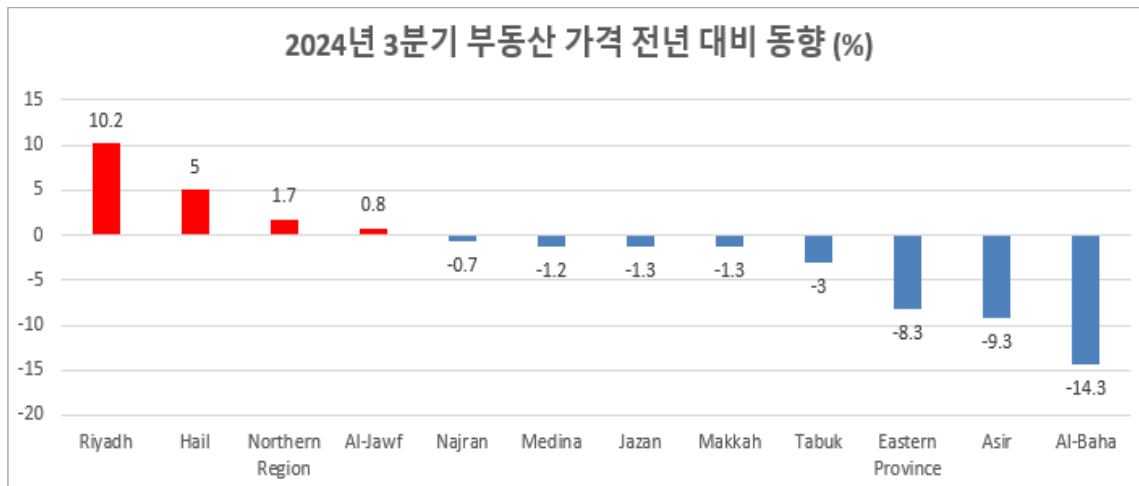
구 분	2021	2022	2023	2024e	2025f
GDP 대비 비중(%)	-2.2	2.5	-2.0	-3.3	-2.9

주: 2024년은 추정치, 2025년은 전망치
 자료: IMF('24.7)

□ 기타 주요 지표

• (인플레이션) IMF는 '25년 사우디 물가상승률을 2.0%로 전망

- 2022년 2.5%, 2023년 2.3%, 2024년 1.9%에 이어 인플레이션은 안정적
- 의류, 식품 등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안정적이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리야드 및 제다의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대료 지속 상승
- 특히 리야드는 2024년 3분기 부동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상승



자료: Real Estate Price Index, Q3 2024, GASTAT('24.10)

• (실업률) 2024년 2분기 사우디인 실업률 7.1%로 역대 최저치 기록

- 사우디 정부의 고용정책은 사우디인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정책 효율성 역시 사우디인의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로 평가
- 2024년 2분기에는 사우디인 실업률이 여성 취업 확대에 힘입어 역대 최저치인 7.1%를 기록하였으며 Vision 2030 목표치인 7%에 근접

〈2024년 사우디 실업률 동향〉

지표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실업률	1.8	11.8	3.5	1.7	10.8	3.3
- 사우디인	4.2	14.2	7.6	4	12.8	7.1
- 비사우디인	0.8	5.4	1.1	0.8	5	1.1
경제활동 참가율	83.2	33.4	66	83.6	33.4	66.2
- 사우디인	66.4	35.8	51.4	66.3	35.4	50.8
- 비사우디인	93.3	28.3	79.6	93.4	28.9	80.3

자료: Labor Market Statistics Q2/2024, GASTAT('24.10)

• **(금리) 사우디 중앙은행(SAMA)은 '24년 9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 (6.0%→5.5%)**

- 사우디는 **美 달러 고정환율제 채택 국가로 연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응**

다. 산업 환경

□ 석유가스 및 석유화학 산업

• **사우디는 세계적인 원유 생산국으로서 석유 확인 매장량 최상위권 국가**

- OPEC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사우디의 석유 확인 매장량은 2,672억 배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17% 보유하며 베네수엘라에 이은 매장량 2위 국가

- OPEC+의 자발적 감산 정책으로 인해 사우디의 2024년 일평균 생산량은 902만 배럴(세계 일산량의 10%)로, 미국(1,290만 배럴)에 이어 2위 기록

- 사우디 일일 원유 수출은 574만 배럴로 세계 원유 수출의 약 15% 차지 ('24년 7월 기준)

• **Aramco를 중심으로 사우디 경제 발전 도모**

- 사우디의 국영석유기업으로 원유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Aramco의 석유가스 수익은 국가 운영 및 국가 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 2024년 3월 Aramco 지분의 8%를 PIF로 이전 - 2022년 4%(PIF), 2023년 4%(Sanabil) 이전을 포함하면 16%의 지분을 PIF 및 산하기관들이 보유(나머지 80% 이상은 정부 소유)

- Aramco는 2019년 12월 IPO를 통해 전체 지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공모했고, 이후 2024년 6월 다시 0.64%에 해당하는 15억 4,500만 주를 완판하며 사우디 증권시장의 성장에도 기여

• **Aramco, 향후 3개년(2024~2026년) 동안 99개의 프로젝트 추진 예정**

- 2024년 사우디 에너지부가 원유 생산량 확대를 위한 투자 철회 방침을 세우며 Aramco의 사파니아

유전 확장 공사 취소 등 석유 사업은 축소되고 있으나 Marjan, Shaybah, Ghawar 등지에서 다수의 프로젝트 추진 예정

* 12개 해양 시설 등 40여 개의 탄화수소 시설의 그린필드 및 확장 사업 포함

〈Aramco 부문별 프로젝트 추진 계획 (2024~2026년)〉

석유가스·석유화학	파이프라인 및 수송	토목 및 해양 인프라
58	22	19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자재 수요 전망		

- 탄소강 파이프(carbon steel pipe) 20,000km
- 구조용 강재(structural steel) 240만 톤
- 송전로(transmission lines) 2,300km
- 스위치기어(switchgears) 21,000개
- 콘크리트 400만^m
- 트랜스포머 5,300개
- 전선(high/medium/low-voltage cables) 44,000개

* 자료: Aramco 발표, Future Projects Forum(2024년 5월, 리야드)

• 고부가가치 석유화학(liquid to chemical) 사업 투자 확대

- 석유화학 제품은 일반적으로 원유에 비해 수익 마진이 더 높고 일정하며, 사우디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화학제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Liquid to Chemical(LTC)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
- Aramco는 1976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사우디 화학기업인 SABIC(Saudi Basic Industries Corporation)의 지분을 2020년에 70% 인수하고 다운스트림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Ethylene Glycol, Ethylhexanol 등 생산
- 또한 Aramco는 2011년 Dow Chemical Company와 협력하여 Sadara Chemical Company를 설립하고 세계 최대 규모 통합 화학단지에서 다양한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생산 중
- 한편 Aramco는 한국 에쓰오일과 국내 석유화학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하는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을 2023년 3월 개최한 바 있음. 샤힌 프로젝트의 핵심은 아람코의 화학제품 생산 첨단기술인 TC2C(Thermal Crude-To-Chemical) 기술로 원유에서 바로 에틸렌 등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

• 주요 프로젝트 수행에 자국 생산 비중 강화 추세

- 사우디 내 전 산업군에서 국산화(Local Content)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석유화학 및 석유가스 산업은 이러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산업 중 하나
- Aramco는 현지화청(LCGPA)이 설립되고 본격적으로 국산화 정책을 펼치게 된 2018년보다 이전인 2015년부터 IKTA(In-Kingdom Total Value Add)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추진 사업의 70% 국산화를 목표로 각종 지원 사업 및 조달 정책 도입

□ 금융 산업

- Vision 2030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FSDP(Financial Sector Development Program)는 소득 다각화, 저축 증진, 금융 및 투자 기회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8년 개시 이래 중앙은행(SAMA)과 자본시장청(CMA) 등 이행 중
 - 2022년에는 FSDP 하에 금융기술전략(Financial Technology Strategy)을 발표하여 비즈니스 환경 개선, 민간 부문 참여 활성화, FDI 유치, 디지털화 등 장려
- *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사우디 내 핀테크 기업은 224개 사

[Financial Techology Strategy 주요 목표]

- 1) 2025년까지 핀테크 기업 수를 230개 사로 확대
- 2) 2025년까지 비현금(디지털) 거래 비중을 70%까지 확대
- 3) 2030년까지 핀테크 기업 수를 525개 사로 확대
- 4) 2030년까지 금융 산업의 GDP 기여도를 130억 리알로 확대
- 5) 2030년까지 18,000개의 직접고용 일자리 창출

□ 제조업

- 국가산업화전략(National Strategy for Industry)은 2022년 발표되었으며 산업 다변화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National Strategy for Industry 주요 목표]

- 1) 2030년까지 제조업 관련 GDP를 3배로 늘려 8,950억 리알 달성
- 2) 2030년까지 제조업 분야 일자리를 2배로 늘려 210만 개의 일자리 창출
- 3) 2030년까지 공산품 수출을 5,570억 리알로 증대
- 4) 2025년까지 공장 수를 36,000개로 확대

- 관련 기관으로 사우디 경제개발위원회(CEDA: Council of Economic and Development Affairs), 국가 산업 개발 및 물류 프로그램(NIDLP: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Logistics Program), 산업광물자원부(MIM: Ministry of Industry and Mineral Resources) 등이 전략 이행
 - 총 12개의 타깃 산업과 118개의 세부 분야를 정하여 전략을 수립
 -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사우디 내 공장 수는 약 11,849개

[National Strategy for Industry 12개 전략적 육성 산업]

- | | |
|-----------------|--------------|
| 1) 화학 / 특수화학 | 7) 해양 제조 |
| 2) 플라스틱 및 고무 가공 | 8) 제약 / 의료기기 |
| 3) 식품 / 농업 | 9) 방산 |
| 4) 재생에너지 | 10) 건설 자재 |
| 5) 항공 (민간 및 군사) | 11) 기계 / 장비 |
| 6) 자동차 (전기차 포함) | 12) 광업 / 광물 |

□ 관광·문화 산업

- (관광) 2019년 발표된 국가관광전략(NTS, National Tourism Strategy)은 사우디의 관광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활동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관광부(Ministry of Tourism), 관광개발기금(Tourism Development Fund), 관광청(Saudi Tourism Authority) 등이 수행 중

[National Tourism Strategy 주요 목표]

- 1) GDP의 10% 기여
- 2) 160만 개의 일자리 창출
- 3) 관광 산업과 관련된 민간 기업 육성 및 외국인 투자 유치

- '27년 아시안컵, '29년 동계아시안게임, '30년 엑스포, '34년 월드컵 등 세계적 축제를 최근 연속적으로 유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호텔, 항공 등 산업도 개발 중
- 알 올라(Ai Ula), 디리야(Diriyah) 등 대표 관광지 개발도 진행

<2023년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수>

순위	지역	인원(명)
1	메카	983만
2	동부 지역(담맘 등)	382만
3	리야드	191만
4	메디나	33만

주: 젓다 등지에서 관광을 즐기는 순례객이 많은 관계로 메카주가 압도적 방문 수 기록
 자료: 사우디 문화부, 2023년 문화산업 통계 ('24.9)

- (게임) 2022년 9월 발표된 NGES(National Gaming and E-Sports Strategy)에 따라 86개의 세부 이니셔티브 시행

[National Gaming and E-Sports Strategy 주요 목표]

- 1) 사우디 내 250개의 게임 회사 설립
- 2) 2021년부터 10년 내에 30개 이상의 사우디 제작 게임의 글로벌 300위 진입
- 3) 1인당 e스포츠 프로 선수 수 세계 3위 달성
- 4) 세계에서 가장 많이 관람하는 e스포츠 대회 개최
- 5) 2030년까지 500억 리얄을 GDP에 기여
- 6) 2030년까지 39,000개의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 PIF에서는 1,290억 리얄을 투자하여 게임 회사인 Savvy Gaming Group을 설립하였고, 글로벌 게임 회사 Embracer의 지분 10억 달러 인수 등 활동
- 2022년 시작한 e스포츠 대회 Gamers8을 2024년에는 eSports World Cup으로 확대해서 개최하는 등 국제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제공

□ AI 산업

- 2020년 10월 발표된 NSAI(National Strategy for Artificial Intelligence)에 따라 90개의 세부 이니셔티브 시행, 2030년까지 GDP에 600억 리얄(160억 달러) 기여 및 일자리 50,000개 창출 목표

[National Strateg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주요 목표]

- 1) AI 분야에서 세계 상위 15위 진입 및 오픈 데이터 분야 세계 상위 10위 진입
- 2) 데이터·AI 산업 육성을 위해 750억 리얄 투자 및 스타트업 300개 사 이상 창업 지원
- 3) 데이터 및 AI 전문가 2만 명 이상 육성

- 사우디 AI 산업 육성은 데이터인공지능청(SDAIA) 주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SDAIA는 2024년 제3회 Global AI Summit(GAIN) 개최를 통해 NVIDIA, OECD 등과의 협력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라. 정책·규제 환경

□ 사우디, 바레인, 예멘 세율 종합

국가명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		VAT	
	세율	비고	세율	비고	세율	비고	세율	비고
사우디*	20.0%	천연가스 투자 활동(30%), 탄화수소, 원유(85%)	없음		0~15%	배당금(5%), 이자(5%), 매니지먼트 서비스(20%), 로열티(15%), 기타(15%)	15%	금융 서비스 및 부동산 임대 등 일부 예외 존재
바레인	46.0%	석유화학 관련 사업에만 적용	0~12%	별도 소득세 없으나,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외국인 근로자(3%), 바레인 근로자(12%)	없음		10%	
예멘	20.0%	휴대폰 회사(50%), 오일가스 업종(35%), 국제 통신회사(35%)	10~20%	거주자는 10~15%, 비거주자는 20%	0~10%	중앙은행 미승인 기관 이자(10%), 비거주자에 대해 로열티(10%), 커미션(10%), 기타(4%, 10%)	5~10%	통신, 모바일(10%) 분야를 제외하고 5%

주: 사우디 국내 기업은 법인세 대신 종교세(Zakat) 2.5% 부과

자료: 사우디 관세청, Tamimi, Deloitte, PwC, Global Expansion 및 KOTRA 리아드 무역관 조사 종합 ('24.10)

□ 2024 개정 외국인투자법

- 2024년 8월 사우디는 국제 투자 유치의 확대와 국내외 투자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외국인투자법 발표, 2025년 2월 발효**
 - 시행령은 2025년 2월 전까지 발표될 예정이며 실무사항 규정 예정
- 개정법은 **현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라이선스 요건이 삭제되면서 간소화된 등록 절차 도입
 -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적 대우를 보장하며,
 - 1) 국가 수용으로부터 투자자 보호, 2) 투자자의 자금 이체 권리 보호 등 포함
 -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 프레임워크 도입
 - 법원 구제 외 중재, 조정, 화해 등과 같은 대체 해결 수단 도입

□ 중동지역본부(Regional Head Quarter, RHQ) 유치 정책

- Vision 2030의 일환으로 비석유 부문 성장 촉진, 제조업 인프라 구축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장려 목적으로 발표하였으며, 글로벌 기업 중 사우디 내 중동지역본부(RHQ)가 없는 기업은 2024년부터 정부 발주 프로젝트 참여 불가
 - 발급 대상 기업은 사우디와 본국 외 2개국에 진출한 기업이며, 업종 또는 기업별로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진출 고려 시 사우디 투자부에 확인 필요
- 2021년 1월 최초 발표 당시 24개 글로벌 기업이 RHQ 이전 MOU를 체결했으며, 2024년 상반기 기준 약 517개 글로벌 기업이 RHQ 라이선스 발급받음

□ 자국민 의무 고용 제도(Saudization) 정책

- 민간 부문의 사우디 국민 고용 비율을 높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민의 경제활동 참여 장려
 - 2011년 Nitaqat 프로그램 도입에 따라 자국민 의무 고용 제도도 함께 도입
 - * Nitaqat은 Saudization 실현 프로그램의 명칭
 - 사우디 인력사회개발부(HRSD)에서 담당하며 2021년 6월 개정
- 업종 또는 직군별로 의무화 비율이 지정되어 있으며, HRSD에서 관리하는 노무관리 종합 포털 Qiwa에서 Nitaqat 충족 여부 등 관리
 - 산업군 및 인원 규모 등 조건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 별도 확인 필요
 - 산업군에 따라 관리자 비율 및 최저임금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전체 근로자 중 사우디인 채용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비율 준수 여부에 따라 총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미준수 시 불이익 부여 통해 사우디인 채용 장려
 - * Platinum, High Green, Medium Green, Low Green, Red
 - ** Low Green 이하로는 서비스 제한이 들어가며, Red 등급은 사실상 사업 확장 및 변경 등 불가
- 의무 비율 미충족 시 출장 및 귀임 등을 위한 출입국, 신규 채용 등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되며, 사우디인 채용과 관련된 정부 인센티브도 중단될 수 있음

□ 사우디 ESG 정책 동향

- (개요) 사우디는 Vision 2030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분야에서 ESG 정책을 적극 도입 중
- (환경) 2021년 발표된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SGI)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사막화 해결을 위해 대규모 녹지화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중

- 2030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50% 달성 목표
- 총 77개 이니셔티브를 통해 2060년 완전한 탄소 중립 달성 목표

〈사우디 국가환경전략(NES)〉

- 국가환경전략(National Environment Strategy)은 2018년 발표되었으며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 발전, 경제성장과 환경 보존 간의 균형 달성, 모든 산업 부문에서 환경 보호 실시, 오염 방지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제시
- '21년 탄소 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중점을 둔 Saudi Green Initiative 발표
 - 1) 2030년까지 연간 탄소 배출량 2억 7,800만 톤 감축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 2) 향후 사우디 전역에 100억 그루 나무 심기
 - 3) 7,400만 헥타르의 황폐화된 토지 복구
 - 4) 자연보호 지역 비율을 사우디 면적의 30%로 확대
 - 그 외 National Center for Waste Management 등 자원 재활용 확대 등 포함

• (사회) 여성의 사회 참여 허용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사회 참여 증대

- 사우디 여성 고용 시 Nitaqat 평가 비율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여 여성 고용 장려
 - * Nitaqat 여성 평가 : 업종별로 상이하니 예시로 1명을 고용하면 2명으로 인정 가능
- 이 외에도 육아 및 통근 관련 비용 지원 등 여성 취업을 위한 정책 지원
- 잠재 수요 및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2023년 사우디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35%로, Vision 2030 목표인 30% 조기 달성

• (거버넌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 및 기업 자발적 활동 증가

- 최근 신회사법, 내부고발자 보호법, 신상법 등을 통해 다양한 기업 유형을 인정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법 개정 활발, 인권 보호 규제도 증가 추세
- 기업 차원에서는 PIF, Aramco, SEC(전력청), Tadawul(증권거래소)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내부 ESG 프레임워크 또는 이니셔티브를 구축 중

〈사우디 주요 기업 ESG 도입 사례〉

구분	Aramco	NEOM
환경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 목표 •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확대 • 세계 최대 규모 CCUS(탄소 포집, 활용, 저장) 프로젝트 운영하며 기술 개발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한 탄소 중립 도시 건설을 목표로,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 및 풍력 등으로 사용 예정 • 친환경 건축 기술 도입을 통해 에너지 소비 최소화 • 세계 최대 규모 그린 수소 프로젝트 진행 중
사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udization 준수, R&D 센터 운영 • 지역사회를 위한 의료, 교육, 인프라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 고용 촉진 • 국민 대상 IT, AI, 로봇 등 첨단기술 교육 운영
지배구조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기준에 맞춘 재무 보고 및 윤리 경영 • ESG 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목표 달성 위해 독립적 평가 시스템 구축 • 글로벌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운영전략 개발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MSCI ESG 평가에서 BB 등급 획득, '20년 등급은 BB에서 지속 유지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ion 2030의 핵심 기가 프로젝트로,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건설 목표. 더 라인 등 포함

자료: 각 기업 웹사이트('24.10)

2. 시장 분석

- ※ 시장 특성 : 막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강력한 경제 개혁 추진
- ※ 무역 : 非석유 부문 확장 중이나 석유의 무역 규모·수지 등 영향력 여전히 높음
- ※ 투자 : 신투자법 2025년 발효 예정 및 PIF 주도 적극적 국내외 투자 진행 중
- ※ 프로젝트 : 기가프로젝트를 필두로 대형프로젝트 지속 추진중이나 재정효율성 고려중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Vision 2030에 따라 경제 다변화를 위해 국가 주도로 다양한 분야에 적극 투자 중 중동 및 아프리카(MENA) 지역 진출 교두보 및 국가 투자 산업 협력 가능성 대대

□ 국가 전략으로서의 Vision 2030

- Vision 2030은 2016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발표한 국가 전략으로, 사회 및 경제 전반에 걸쳐 2021~2030년간 총 3조 3천억 달러를 투자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다각화 목표 달성

〈Vision 2030 주요 목표〉

구분	목표	세부 추진 목표
활기찬 사회 (A Vibrant Society)	국가 정체성 확립 (with Strong Roo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옴라 순례객 연간 수용력 800만 명 → 3천만 명 • UNESCO 등재 문화유산 2배 증가
	국민 삶의 질 제고 (with Fulfilling L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 도시 3개 세계 100대 도시에 진입 • 문화·엔터테인먼트 국내 가계 지출 2.9% → 6% • 주 1회 이상 운동 인구 13% → 40%
	탄탄한 사회적 기반 마련 (with Strong Found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ial Capital Index 26위 → 10위 • 평균 기대수명 74세 → 80세
번창하는 경제 (A Thriving Economy)	성공 기회 제공 (Rewarding Opport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률 11.6% → 7% • 중소·중견기업의 GDP 기여율 20% → 35% • 여성 경제참여율 22% → 30%
	장기 관점 투자 (Investing for Long-Te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규모 세계 19위 → 15위 • 석유가스 산업 국산화 40% → 75% • PIF 자산 규모 6천억 리알 → 7조 리알
	기업환경 개선 (Open for Busi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5위 → 10위 • GDP 중 FDI 비중 3.8% → 5.7% • GDP의 민간 부문 기여도 40% → 65%

구분	목표	세부 추진 목표
	국가 장점 극대화 (Leverage Unique Pos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gistics Performance Index 49위 → 25위 비석유 GDP에서 비석유 수출 비중 16% → 50%
야심 찬 국가 (An Ambitious Nation)	정부 효율성 제고 (Effectively Govern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석유 정부 수입 1,630억 리알 → 1조 리알 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 80위 → 20위 E-Government Survey Index 36위 → 5위
	사회적 책임 구현 (Responsibly Enab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 총소득 중 저축 비중 6% → 10% GDP 중 비영리 부문 비중 1% → 5% 자원봉사자 매년 100만 명 달성(현 11,000명)

자료: Vision 2030 Overview(*24.10)

□ 국부펀드 및 정부기금을 활용한 투자사업 전개

- 사우디의 대표적인 투자 펀드로는 국부펀드인 PIF(Public Investment Fund)와 국가개발기금인 NDF(National Development Fund) 존재
 - PIF(Public Investment Fund) : 1971년 왕실 법령 M/24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2015년 이후 경제개발위원회(CEDA)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면서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동력으로 역할 확대
 - NDF(National Development Fund) : 2017년 왕실 법령 A/13에 따라 설립된 정책기관으로, 각 산업별 기금과 은행들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중복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지원

□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 (NEOM) The Line, Oxagon, Trojena 등 세부 프로젝트와 에너지 발전 계획 등 구체화하고 있으며, 완공 시 북부 지역과 홍해를 잇는 대규모 도시 인프라 구축
- (Red Sea) 관광 산업 육성 위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홍해 연안 따라 호텔, 주거단지, 공항 등 복합 관광단지 건설 통해 레저 인프라 구축 목표
- (Qiddiya) 리야드 시외에 구축 중인 왕국 최대의 문화·스포츠·엔터테인먼트 집중 지구 개발 프로젝트로, 엔터테인먼트 인프라 구축 목표
- (Land Bridge Project) 왕국 내 주요 도시 및 신도시 간 연결성 확보 및 왕국 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규모 철도망 구축 프로젝트
- (Riyadh Metro)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리야드 내 이동성 향상을 위한 철도 구축 프로젝트로, 2024년 10월 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연내 개시 예정

□ 경제 및 인구 면에서 중동 최대 시장

- (경제) 사우디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MENA)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명목 GDP 1조 1천억 달러를 기록(세계 19위)
- (인구) 3,5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사우디는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 지속적인 인구 증가 상황으로, 젊은 세대의 비율이 높아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 다대
- (위치)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 홍해, 수에즈 운하가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우디 정부는 2030년까지 물류 부문에 2,670억 달러 투자를 발표

나. 교역

□ '23년 사우디의 對세계 교역액 전년 대비 12.33% 하락

- '23년 사우디의 對세계 수출 규모는 3,192억 달러, 수입 규모는 2,064억 달러
 - 수출은 2022년 4,102억 달러에서 큰 감소세를 보였고, 수입은 2022년 대비 약 9%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

〈2021~2024년 상반기 사우디 대외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21	2022		2023		2024.1H	
	금액	금액	증감률 (전년 대비)	금액	증감률 (전년 대비)	금액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총교역	427,956	599,558	40.10	525,641	△12.33	264,156	0.94
수출	275,489	410,156	48.88	319,218	△22.17	156,715	△2.54
수입	152,467	189,402	24.22	206,422	8.99	107,441	6.49
수지	123,021	220,754	79.44	112,796	△48.90	49,274	△17.75

자료: 사우디 통계청(GASTAT, '24.10)

- 사우디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 일본, 인도, 한국 순
 - 중국은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2023년 사우디 전체 수출의 17% 차지. 일본이 수출 324억 달러로 뒤를 이음. 對한국 수출액은 285억 달러로 수출대상국 중 4위를 차지하며 전체 수출의 9%를 차지

〈2021~2023년 사우디 對세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증감률 (’23/’22)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1	중국	50,782	66,480	53,022	18.43	16.21	16.61	△20.24
2	일본	27,291	40,669	32,407	9.91	9.92	10.15	△20.32
3	인도	26,591	41,812	30,152	9.65	10.19	9.45	△27.89
4	대한민국	23,233	37,814	28,517	8.43	9.22	8.93	△24.59
5	UAE	15,024	17,764	16,576	5.45	4.33	5.19	△6.69
6	미국	14,236	23,173	15,560	5.17	5.65	4.87	△32.85
7	바레인	7,007	9,846	8,770	2.54	2.40	2.75	△10.93
8	대만	7,006	10,408	8,237	2.54	2.54	2.58	△20.86
9	말레이시아	2,469	8,382	7,661	0.90	2.04	2.40	△8.60
10	싱가포르	7,038	9,932	7,659	2.55	2.42	2.40	△22.89
전체		275,489	410,156	319,218	100	100	100	△22.17

자료: 사우디 통계청(GASTAT, '24.10)

• 사우디 주요 수출 품목

- 광물성 제품(원유, 천연가스 등)이 전체 수출의 약 82%를 차지하며, 원유 산업의 부산물인 상위 3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음
- 2023년 국제유가 하락 및 자체 감산이 사우디 수출액 감소로 이어짐

〈2023년 사우디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품목명	금액	비중	증감률(’23/’22)
1	광물성 제품	247,918	81.99	△24.33
2	화학 및 관련 제품	20,966	6.93	△30.33
3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17,910	5.92	△24.75
4	비철금속 및 관련 제품	5,914	1.96	△23.92
5	식품, 음료, 식초 및 담배	2,343	0.78	5.29

자료: 사우디 통계청(GASTAT, '24.10)

• 사우디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 미국, UAE, 인도 순

- 사우디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32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21%를 차지했고, 뒤를 이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88억 달러 기록. 對한국 수입액은 60억 달러로 전체 수입국 중 8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체 수입액의 3%에 해당

〈2021~2023년 사우디 對세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증감률 ('23/'22)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1	중국	30,159	39,701	43,238	19.78	20.96	20.95	8.91
2	미국	16,106	17,291	18,775	10.56	9.13	9.10	8.59
3	UAE	12,441	11,997	13,314	8.16	6.33	6.45	10.97
4	인도	8,054	10,509	11,590	5.28	5.55	5.61	10.28
5	독일	7,473	7,980	9,102	4.90	4.21	4.41	14.06
6	일본	6,047	6,702	8,164	3.97	3.54	3.96	21.82
7	스위스	2,193	4,713	6,590	1.44	2.49	3.19	39.83
8	대한민국	3,431	5,258	6,017	2.25	2.78	2.91	14.43
9	이탈리아	4,587	5,169	5,860	3.01	2.73	2.84	13.38
10	이집트	4,198	6,604	5,255	2.75	3.49	2.55	△20.43
전체		152,467	189,402	206,422	100	100	100	8.99

자료: 사우디 통계청(GASTAT, '24.10)

• 사우디 주요 수입 품목

- 수입 품목 중에서는 기계류 및 기계장치, 전기기기 및 부품의 수입이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가장 높았음. 이는 프로젝트 발주 및 제조업 증가의 영향으로 공장 설비, 산업용 기계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
- 또한 차량 수요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송 장비 수입도 높음

〈2023년 사우디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품목명	금액	비중	증감률('23/'22)
1	기계류 및 기계장치; 전기기기 및 부품	45,732	22.15	24.34
2	수송 장비 및 부품	31,565	15.29	15.21
3	화학공업 및 관련 산업 제품	18,900	9.16	△0.07
4	비철금속 및 관련 제품	18,361	8.89	2.98
5	광물성 제품	16,380	7.94	10.44

자료: 사우디 통계청(GASTAT, '24.10)

□ 비관세 장벽 및 수입 규제

- (비관세 장벽) 식품 및 의약품, 화장품 관련 SFDA, 그 외 모든 인증은 SASO 담당

〈수출 및 진출 시 필요 주요 인증〉

국가	인증명(인증기관)	분야	인증마크	주요 사항
사우디	SASO (Saudi Standards Metrology & Quality Organization)	SFDA 등록 대상 제외 전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시기 : 2006년 5월 • 인증 절차 : 제품정보 등록→인증기관 선정→PCoC 수수료 지급→서류 확인 및 보완→SABER 플랫폼 인증 등록→PCoC 발급 • 인증 소요 비용 : 50만~95만 원
	SFDA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식품 및 농산품, 의약품 및 화장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시기 : 2008년 12월 • 인증 절차 : 수권대리인(AR) 발굴→회사정보, 제품정보, 인증정보 공유→AR이 SFDA MDMR 시스템 및 MDMA 시스템 제품 등록→SFDA 승인 • 인증 소요 비용 : 품목별 제품 분류에 따라 상이

자료: 사우디 표준청(SASO), 식약청(SFDA)(‘24.10)

• **(수입 규제) 사우디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제도를 지향하며, GCC 차원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 등에 참여**

- GCC 차원에서 한국산 차량용 배터리를 포함한 다수 국가의 차량용 배터리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17년 첫 조치 이후 지속적인 추가 연장 중

〈2024년 GCC 한국 관련 수입 규제 현황〉

HS 코드	품목명	규제 형태	최종 판정 결과 (부과 기간)	최종 판정 결과 (판정 결과)
85071000	납축전지(자동차 배터리)	반덤핑 (규제 중)	2017.6.25~2028.4.22	• 한국: 12~25%
390690	고흡수성 수지	반덤핑 (규제 중)	2023.3.4~2028.3.3	• 한국: 124%

주 : 세이프가드·반덤핑 등 수입 규제의 조사·판정·관세 부과는 GCC 차원에서 결정
자료: WTO(‘24.10)

- GCC는 2024년 현재 7개의 반덤핑 규제 부과 중이며, 6개 품목에 대해 추가 조사 중

〈2024년 GCC 기타 수입 규제 현황〉

HS 코드	품목명	규제 형태	최종 판정 결과 (부과 기간)	최종 판정 결과 (판정 결과)
69073000	세라믹 제품	반덤핑 (규제 중)	2020.6.6~2025.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23.5~76% • 인도: 17.6~106%
76061200, 76069200	알루미늄 합금	반덤핑 (규제 중)	2021.7.22~2026.7.21	• 중국: 33%
85071000	분리기를 포함하는 축전기	반덤핑 (규제 중)	2022.10.1~2027.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8~41% • 튀르키예: 39%
8536, 8544	1000볼트 이하의 전기 접속자, 스위치, 소켓, 플러그	반덤핑 (규제 중)	2024.8.20~2029.9.25	• 중국: 11.3~42%
2523	시멘트	반덤핑 (규제 중)	2020.6.20~2025.6.19	• 이란: 67.5%

자료: GAFT(‘24.10)

□ 사우디 FTA 체결 현황

• 사우디아라비아는 독자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없이 GCC를 통해 참여

- 현재 싱가포르 및 EFTA와 FTA가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2023년 12월 협상 타결
- 이 외에 중국, 뉴질랜드 등과도 협의 중이나 GCC 회원국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관계로 협상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

〈GCC FTA 체결 현황〉

국가	현황	체결일	발효일
싱가포르	발효	2008.12.15	2013.9.1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발효	2009.6.22	2015.7.1
대한민국	발효 준비 중	2023.12.28	-
중국, 뉴질랜드 등	협의 중	-	-

자료: Saudi General Authority of Foreign Trade 및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4.10)

다. 투자

□ 對사우디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

- 2024년 10월 공개된 2023년 FDI 실적 관련, 사우디 정부는 2023년 통계부터 IMF가 발표한 국제수지 매뉴얼(BPM6)의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FDI 통계와 차이가 발생
- 사우디 투자부에서 언급한 2023년 주요 성과로는 1) FDI Inflow가 960억 리알을 기록하면서 국가투자전략(NIS) 목표인 830억 리알을 16% 초과 달성, 2) 명목 GDP 대비 FDI inflow 비율 역시 2.4%로, NIS 목표 달성임

[2023년 FDI 통계 발표 주요 내용]

- FDI 유입액 : 960억 SAR(256억 달러)
 - 2017년 대비 약 240% 성장, 2022년 대비 50% 성장
 - 경제활동 분야별로는 제조업(344억 리알), 금융 및 보험업(149억 리알), 건설업(134억 리알), 도소매업(126억 리알), 전문·과학·기술업(59억 리알), 광업(42억 리알), ICT(38억 리알), 부동산업(26억 리알), 지원 서비스업(22억 리알), 예술·엔터테인먼트업(11억 리알) 순 기록
 - 지역별로는 리야드(329억 리알), 동부(285억 리알), 메디나(232억 리알) 순으로 높음
- FDI 재고 : 8,970억 SAR(2,396억 달러)
 - 2017년 대비 약 120% 성장, 2022년 대비 13% 성장
 - G20 국가 중 2023년 FDI 재고액 기준 16위를 차지 (성장률 기준 4위)

- 경제활동 분야별로는 제조업(2,587억 리알), 도소매업(1,348억 리알), 금융 및 보험업(1,121억 리알), 운송보관업(1,112억 리알), 건설업(798억 리알), 광업(332억 리알), ICT(317억 리알), 전문·과학·기술업(304억 리알), 지원 서비스업(281억 리알), 부동산업(217억 리알) 순 기록
- 지역별로는 동부(3,658억 리알), 리야드(2,868억 리알), 메카(1,546억 리알) 순으로 높음
- FDI 순유입액 : 860억 SAR(230억 달러)
 - 2022년 대비 90% 성장
 - G20 국가 중 2023년 FDI 순유입액 기준 11위 차지 (성장을 기준 2위*)
 - * 아랍코 특이치인 2022년 550억 리알, 2021년 490억 리알 투자 건 제외 기준
 - 경제활동 분야별로는 제조업(321억 리알), 금융 및 보험업(147억 리알), 건설업(109억 리알), 도소매업(105억 리알), 전문·과학·기술업(52억 리알), ICT(34억 리알), 광업(30억 리알) 순 기록
- 2023년 국가별 투자 동향
 - FDI 유입 : UAE(131억 리알), 프랑스(112억 리알), 영국(63억 리알), 이집트(61억 리알), 미국(55억 리알)
 - * 권역별로는 유럽 41%, 아시아 40%, 아프리카 8%, 북미 6% 순으로 유입액이 많았음
 - FDI 채고 : 미국(2,023억 리알), UAE(1,109억 리알), 영국(696억 리알), 프랑스(620억 리알), 요르단(347억 리알)
 - * 권역별로는 아시아 43%, 유럽 26%, 북미 24%, 아프리카·남미 각 3% 순
 - FDI 순유입 : UAE(118억 리알), 프랑스(111억 리알), 영국(61억 리알), 이집트(60억 리알), 룩셈부르크(53억 리알)

□ PIF 투자 동향

- PIF의 운용자산(AUM)은 2023년 말 기준 7,651억 달러로, 세계 국부펀드 중 7위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 7월 기준으로는 9,250억 달러 기록
 - PIF는 2016년 이후 산업 다변화를 위해 2023년까지 87개 이상의 기업을 설립하고 73만 개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
- PIF는 2025년까지 AUM을 1조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비석유 부문 추가 투자 계획 중. 이를 통해 비석유 부문 GDP에 3,200억 달러를 기여하고, 국내 생산 비중을 60%까지 올리며 일자리 180만 개 창출 목표
- PIF 프로젝트 중 가장 대표성이 있고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기가 프로젝트’로 분류하며 NEOM, Red Sea, Roshn, Qiddiya, Diriyah가 이에 해당. 2023년에는 Riyadh Air(항공사), Lifera(헬스케어), Ardara(부동산) 등 기업을 설립했으며 2024년에는 대표적으로 Alat(전기전자)를 설립

□ NDF 투자 동향

- NDF는 주요 산업별로 구성된 기금들을 관리하며 각 기금들은 주요 정부 부처별로 추진하는 사업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됨

〈NDF 관리 주요 펀드 유형〉

펀드명	분야	주요 활동
Agriculture Development Fund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용자는 최대 2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제공 (신규/확장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경작 활동 등 지원) • 단기용자는 기본 2년, 최대 4년 상환 조건으로 제공 (운전자본, 해충 피해, 생산 주기 1회 등 금융 지원) • 중점 지원 분야는 양계농장, 그린 하우스, 수경재배, 지방 경제 활성화, 공급망 확대, 식량안보 확보 등
Cultural Development Fund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ltural Projects Incentive Program으로 최대 5년 상환 조건으로 문화산업 관련 기업 경영활동 지원 • Film Sector Financing Program으로 영화 또는 TV 시리즈물 제작 및 유통 전 과정 지원(핀테크 기업 협업으로 700만~1천만 리알 한도 내 금융 지원) • 중점 지원 분야는 문화부에서 지정한 16개 분야(문화유산, 박물관, 공연, 영화, 패션, 식문화, 음악 등)
Events Investment Fund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35개의 행사장 설립 목적으로 민간 부문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급증하는 행사 수요 대응 • 세부적으로 영화관(16), 컨벤션센터(5), 실내경기장(5), 아트갤러리(3), 사격장(2), 자동차 경주장(2), 경마장(2)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mheer 프로그램은 사우디인의 On-the-Job-Training 비용을 3~6개월 지원 (전문대 등의 diploma 소지자는 월 2천 리알, 대출 학사학위 소유자는 월 3천 리알 한도) • Strategic Partnership Institute Program은 사우디인 피고용자의 훈련기간 24개월 동안 월 3천 리알 한도 내에서 고용주 훈련비용의 75%를 지원하고 급여는 월 1천 리알 한도 내에서 지원, 온보딩(on-board) 단계에는 월 2천 리알 한도 내에서 급여의 50% 지원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 분야 대상) • HADAF Leadership 프로그램(Cranfield University) 및 기타 민간 교육기관들과 협업을 통한 훈련 프로그램 제공 • Doroob라는 국가 e-training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우디인 대상 온라인 직업 훈련 제공 • 정규직 고용 시점에서 24개월 동안 급여의 30%를 고용주에 지급하며, 여성 또는 장애인의 경우 10% 추가 지급이 가능함. 지원 총액은 3천 리알 또는 급여의 50% 중 더 작은 금액을 적용 (급여 3,200~15,000리알 대상) • Qurrah는 육아 지원 프로그램으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고 급여 8천 리알 이하의 사우디 여성 취업자 대상 6세 이하 자녀들의 보육시설 사용료의 50%를 지원 (1,600리알 한도) • Wusool은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고 급여 8천 리알 이하의 사우디 여성 취업자와 장애인 대상 직장 통근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24개월 동안 Uber 또는 Careem 사용비의 80%를 지원
National Infrastructure Fund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BlackRock을 전략적 파트너로 출범한 펀드로, 사우디 내 프로젝트 추진에 2030년 전후까지 2천억 리알 규모의 투자 진행 예정 • 교통물류, 정보통신, 에너지, 수처리, 제조, 보건, 교육 등의 전략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
Real Estate Development Fund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 시민의 주택보유율을 70%로 올린다는 Vision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 Sakani는 개인을 지원하는 REDF 대표 프로그램으로, 직접 건설(36개월 내 완공 조건으로 건설 단계별 금융 지원), 주택 구매(할부금융 할인, 공공주택 제공 등 소득에 따라 10만~15만 리알 지원) 등의 금융 지원 • 주택 건설 프로젝트 관련 부동산 개발자 또는 금융기관 대상 금융 지원, 수익금 투자 및 부동산 매매, 시정부 및 공기업 등과 소외지역 주택 건설 등 지원사업 수행
Saudi Exim Bank	수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업무 관련 대출, 수출입은행 운전자본 지원, 수출이 발생하는 해외 프로젝트 중장기 용자, 국제 입찰에 필요한 Letter of Guarantee 발행 등 금융 지원 업무 • 무역보험, 신용장 보험증권 등 금융상품 제공

펀드명	분야	주요 활동
Saudi Fund for Development	국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LDC)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론(soft loan) 형태로 지원 금융 지원을 시작한 1975년부터 2022년까지 84개국의 700개 프로젝트에 대해 694억 리알 상당 739건의 금융 지원 실시, 이 외에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와 9억 리알 상당 협약 2건 체결
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	산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faq 프로그램은 사업 시작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 자문, 직무훈련, 법무 및 세무 관련 컨설팅, 투자자 연결 등 종합적으로 지원(King Saud University와 Prince Sultan bin Abdulaziz Development Fund 인큐베이터 협업) Mutajadeda는 에너지부와 함께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재생에너지 부품 제조업 및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75%에 대해 3년 거치, 15년 만기 조건으로 금융 지원. 재생에너지 IPP는 3년 거치, 20년 만기 조건 지원 Tanafusiya는 기존 시설의 에너지 효율화 또는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2년 거치, 최소 7년 만기 조건의 금융 지원을 하며 4차 산업혁명 기반 자동화 솔루션 도입 등의 프로젝트는 추가 금융 지원도 가능 Tawteen은 자국 생산 부품으로 공급선 전환 등 local contents 비율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2년 거치, 최소 7년 만기 조건으로 지원되며, 구매계약이 있는 프로젝트는 fast track으로 처리. 정부 기관별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SABIC(Nusaned), Aramco(IKTVA), SEC(Bena), Maaden(Local Content Development Initiative), STC(Rawafed), LCGPA(Localization of Industry & Knowledge Transfer) 등이 있음 NDLP(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Logistics Program)를 통해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을 지원하며, 리야드, 담맘 등 대도시는 15년 만기 50% 대출, 카심, 라브 등 중급 도시는 20년 만기 60% 대출. 타북, 지잔 등 소형 도시는 20년 만기 75% 대출 지원
Small & Medium Enterprise Bank	중소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우디 중소기업청(Monsha'at) 산하기관으로 Saudi Venture Capital Company와 Kafalah가 협력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 제공 소액 대출(microloan)은 연 매출 300만 리알 이하이고 정규직 5명 이하 기업 대상으로 3개월 거치 2년 만기 조건으로 50만 리알까지 금융 지원 운전 자본 대출(working capital loan)은 연 매출 2억 리알 이하이고 직원 250명 이하 기업 대상으로 기업 운영 자금을 1년 거치 3년 만기 조건으로 1,500만 리알까지 금융 지원 기간 대출(term loan)은 연 매출 2억 리알 이하이고 직원 250명 이하 기업 대상으로 고정자산 취득 및 사업 확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 등을 6개월 거치 3년 만기 조건으로 1,500만 리알까지 금융 지원 전자 상거래 대출(e-commerce loan)은 연 매출 2억 리알 이하이고 직원 250명 이하 전자상거래 기업 대상으로 2년 만기로 250만 리알까지 지원 리볼빙론(revolving limit loan)은 연 매출 2억 리알 이하이고 직원 250명 이하 기업 대상으로 사전 승인된 신용한도 내에서 단기 운영 자금 등의 용도로 1년 만기 조건으로 800만 리알까지 지원 중소기업용 신용카드 발급
Social Development Bank	사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금융 지원으로, 결혼, 주택 수리, 자동차 구매, 가업 활동, 저소득층 생활비, 자녀 금융교육, 취업 또는 창업 준비 등의 목적을 위한 생활자금 지원 기업 금융 지원으로, 스타트업, 유망 기업, 기업활동을 위해 유동성이 필요한 기업, 디지털 기술 기업, POS 활용 기업, 프랜차이즈 기업 등 기업 유형별 자금 지원 비영리 기관 금융 지원으로, 정부 조달 입찰 기업, 협동조합, 협회 또는 사회적 기업 등에 자금 지원
Tourism Development Fund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AWN Tourism & Hospitality 프로그램으로 관광산업 관련 중소기업 대상 10년 만기 조건으로 1천만 리알까지 지원 관광 자원 개발, 호텔 또는 리조트 건설, 요식업 운영 등 관광산업과 관련된 대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

자료: 2023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실무가이드(KOTRA), 사우디 정부기관 조사

□ 투자 진입 장벽

1) 투자 진출 검토 과정 시 진입 장벽

• 대부분의 산업이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어 있으나 일부 산업 투자 제한

-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 원유 탐사·시추·생산, 군부대 케이터링, 보안 및 탐정 서비스, 메카 및 메디나 부동산 투자, 성지 순례(Hajj) 투어 서비스, 인력 채용(recruitment) 서비스, 국제산업분류 CPC 621에 해당하는 커미션 에이전트, 어업 등

• 또한 일부 업종의 경우 현지인 최소자본금이 요구되거나 사우디 현지 파트너사와의 합작 진출이 유리한 경우가 있음

- 현지인 최소 지분 필요 분야 : 통신(40%), 보험 및 재보험(40%), 부동산 금융(40%), 건설 프로젝트 관리(25%), 대중교통(20~30%)

〈라이선스별 최소자본금 및 사우디 최소 지분〉

연번	라이선스 유형	최소자본금 (SAR)	사우디인 최소 지분(%)
1	Commercial(with Saudi Partner)	26,666,667	25%
	Commercial (100% Foreign)	30,000,000	-
2	Communications	-	40%
3	Communications(Value Added)	-	30%
4	Insurance	-	40%
5	Reinsurance	-	40%
6	Property Financing	200,000,000	40%
7	Property Investment	프로젝트 규모 3천만 리얄 이상	-
8	Professional Licensing	-	25%
9	Management of Construction Projects, detailed engineering design and EPC contracts	-	25%
10	Public Transport (bus transportation within cities)	500,000	30%
11	Public Transport (metro transportation within cities)	500,000	20%
12	Joint Stock Company	500,000	-
13	Joint Stock One Person Company	5,000,000 (공공 부문은 제외)	-
14	Practice Other Transports Activities	10,000,000	-
15	Digital Brokerage	2,000,000	-
16	Collection of Financing Agencies Debts	10,000,000	-

자료: 2023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실무가이드(KOTRA), 사우디 정부기관 조사

• 사우디 내수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수요 예측 애로 존재

- 산업 및 품목별 시장에 대한 공개된 정보의 부족으로 현지 시장조사 단계에서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우며,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실무와는 다른 경우도 발생하여 준비 단계에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기도 함

2) 투자 진출 운영 단계 진입 장벽

• 사우디에서 현지 사업체 운영 관련 고비용 부담

- 사우디 진출 후 투자 라이선스 유지를 위해서는 사우디 투자부에 서비스 비용으로 매년 6만 리얄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 외에도 사업자등록증 관리, 출입국 비용, 부양가족 관리비, 정부 포탈 가입비 등 발생

〈사우디 현지 사업체 운영 관련 주요 비용 예시〉

구분	비용
투자 라이선스 비용(매년)	2,000리얄 (최대 5년)
MISA 서비스 비용(매년)	첫해 10,000리얄 지급 후 매년 60,000리얄 지급
법인 등록 비용(매년)	법인 유형(LLC, JSC, Limited Partnership Company) 및 본점/지점 구분에 따라 400~1,600리얄
공시 비용	500리얄 + 15% VAT
Commercial Register(CR) 발급 및 갱신(매년)	본점 200리얄, 지점 100리얄
상공회의소 등록 비용(매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규모, 직원 수, 지역 등에 따라 상이(5개 내외 등급별 300~1만 리얄) 예시로 리야드 법인으로 자본금이 37만 5천 리얄 이하에 직원 수가 6~49명인 경우 등록 비용은 매년 1천 리얄
Exit/Re-entry Visa(1회)	200리얄 (출입국 시 발생)
Iqam(거주증) 발급·갱신비용(매년)	650리얄
Expat Levy/Work Permit(월)	800리얄 (산업 및 기업별 상이한 금액 적용 가능)
Expat Dependent Fee(월)	400리얄 (피고용자 부담 원칙)
인적자원사회개발부 온라인 서비스 포탈 Qiwa 가입비(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65리얄(중소기업 대상 한시적 할인 사례도 있음) 사우디인 의무 고용 비율(Nitaqat) 모니터링 등 활용
비자 및 거주증 관리 포탈 Muqem 가입비(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수 10명 미만 기업의 경우 1,100리얄 직원 수 기준 상이한 subscription fee 적용

자료: 2023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실무가이드(KOTRA), 사우디 정부기관 조사

- **인력 채용 및 사무실 임차에 대한 부담**
 - 현지 고용 확대, 사우디인 의무 고용(Saudization) 준수 등으로 임금 상승 및 공급 부족 현상을 겪을 수도 있으며, 적절한 채용 후보를 찾기 위한 수단이 제한적
 - 외국 기업 진출, 창업, 확장 등을 이유로 리야드를 중심으로 사무실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임차료 역시 상승 추세
- **상업법, 투자법, RHQ 등 정부 정책과 규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현지 법인 또는 지사 등 운영 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투자 필요**
- **이 외에 모든 현지 활동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 15%, 외국인 지분에 대한 법인세 20%, 해외 서비스 이용 및 로열티 등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세(WHT) 5~15% 등의 세무 부담 발생**

라. 프로젝트

□ 사우디 프로젝트 시장 개요

- 사우디 프로젝트 시장 추정 규모는 1.87조 달러로 MENA 지역 최대 규모

〈사우디 프로젝트 시장 단계별 및 산업별 구성〉

프로젝트 단계별 비중		프로젝트 산업별 비중	
검토	8.7%	건설	55.8%
디자인	54.1%	교통	13.1%
		전력	12.6%
FEED	3.7%	제조	4.5%
		수처리	4.2%
입찰	16.2%	가스	4.1%
		석유	3.8%
실행	17.3%	화학	2.0%

자료: Meed Projects 추정치, pre-execution 및 execution 프로젝트 기준('24.10)

- 특히 최근에는 사우디 국부펀드 PIF가 주도하는 '기가 프로젝트(giga project)'와 석유가스 사업 등의 발주가 이어지면서 2020년 이후 발주액이 급격히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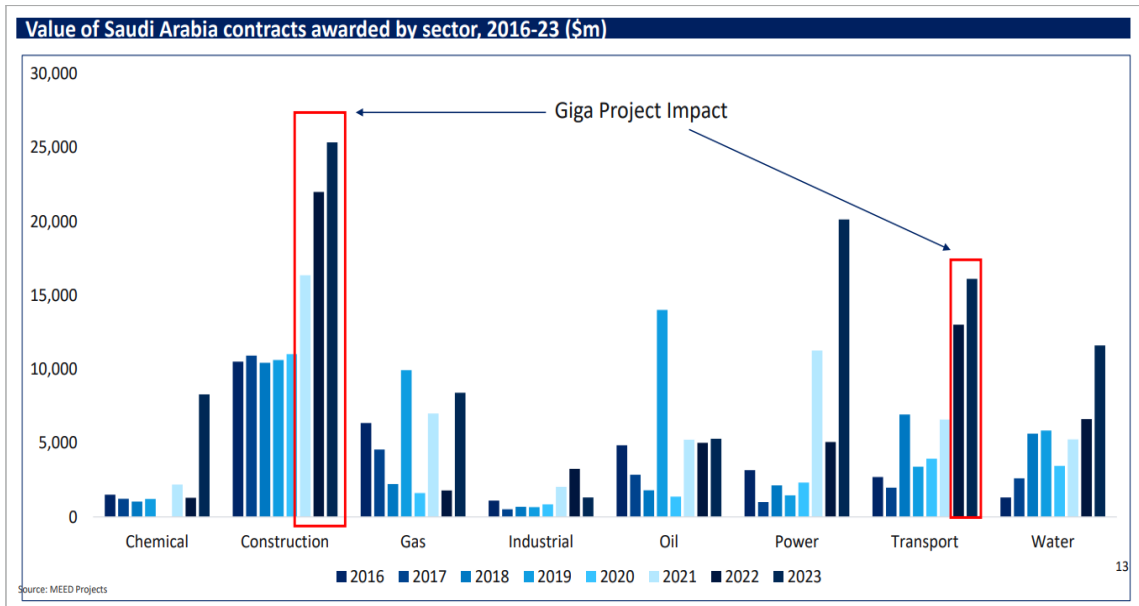
〈사우디 프로젝트 시장 단계별 및 산업별 구성〉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H
금액(백만 달러)	24,411	56,505	62,652	104,087	48,850
성장률(%)	-48.5%	131.5%	10.9%	66.1%	

- 2023년 발주액은 1,041억 달러로 2022년 627억 달러 대비 66% 성장

- 프로젝트 내용 면에서는 리조트 개발, 복합 화력 및 재생에너지 발전, 터널 및 철도 포함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이 활발하여 건설, 전력, 교통 분야 발주 급격히 상승

〈사우디 산업별 발주액 (2016~2023년)〉



자료: Saudi Giga Projects(June 2024), MEED Projects

□ 주요 발주처 동향

- 프로젝트 발주금액이 가장 높거나 향후 발주가 유망한 사우디 주요 발주처들의 2024년 주요 동향은 아래와 같음

〈2024년 사우디 주요 발주처별 동향〉

국가	분야	진행상황
Aramco	석유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부 지침으로 석유 증산 관련 사업 유보 MGS-3 등 가스 사업 및 COTC 화학 사업 집중 AI, 신소재, 제조업 등 신사업 분야 관심
NEOM	기가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Line 프로젝트 중장기 단계적 시행으로 전환 Hidden Marina, Trojena, Oxagon 등 사업 유지 아카바 만에 Manga라는 럭셔리 관광 클러스터 추진
Red Sea Global	기가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d Sea, Amaala에 2024년 연말까지 5개 호텔 개관 목표 2030년까지 50개 리조트 개발 목표로 섬 개발 한창 하수 처리 등 유틸리티 발주 활발
Qiddiya Investment Company	기가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Six Flags 테마파크와 Aquarabia 워터파크 2025년 개관 스타디움 건설로 2034년 월드컵 경기장 활용 예정 e스포츠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개발 진행 중
ROSHN	기가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까지 사우디 전역 9개 도시에 40만 주택 공급 주택 개발 사업이 리야드 중심에서 전역으로 확대 중 2024년 CISCO와 IoT 협약 체결 등 스마트 시티 관심
Diriyah Gate Development Authority	기가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ESCO 지정 At-Turaif 중심으로 1단계 사업 진행 중 초대형 지하주차장, 대학, 도로, 상권 개발 등 발주 해외 로드쇼 등 부동산 투자 유치 활동 전개를 시작
Saudi Power Procurement Co. (SPPC)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증한 전력 수요 충당 위해 화력, 재생 등 발주 재생 Round 5 발주 마무리 진입, Round 6 준비 태양광 위주에서 풍력, BESS 발주 증가 추세
Royal Commission for Riyadh City (RCRC)	도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기간의 메트로 사업 2024년 내 개통 예상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7호선 2025년 발주 본격화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공사 발주 증가 추세
Saudi Water Authority (SWA)	수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5월 SWCC에서 SWA로 개명 확인 담수화 사업 외 연구개발, 정책 기능 강화 예상 담수화 플랜트 친환경 기술, 해수 자원화 등 관심
King Salman Park Foundation	도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최대 규모 도심공원 개발 사업 예술단지 포함 1단계 사업 2026년 완공 목표 터널, 방문객센터 등 일부 완공으로 진도를 정상
Water Transmission & Tech Co (WTTCO)	수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최대 규모 물 수송 및 저장 프로그램 착수 2030년까지 380억 달러 규모의 396개 프로젝트 수행 2027년까지 950만m³/d 송수 네트워크 구축 목표
Saudi Nuclear Energy Holding Company	원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우디 원자력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설립 에너지부, 2024년 7월 IAEA에 소량의정서(SQP) 폐기 신청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 사업 추진계획 이상없음 확인

자료: MEED Projects,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체 조사

□ 주요 수주 기업 동향

- 프로젝트 수주 금액이 높은 주요 수주 기업들은 아래와 같음(한국 기업 제외)

〈2024년 사우디 주요 수주 기업 개요〉

국가	분야	진행상황
Larsen & Toubro	인도	• 사우디 프로젝트 시장 최대 수혜 기업으로 부상 • 석유가스, 전력, 수처리 등 다방면 EPC 사업 수주
Nesma & Partners	사우디	• 사우디 기업 중 가장 많은 수주액 기록 • 건설 및 토목 공사 강점으로 기가 프로젝트 다수 참여
Saipem	이탈리아	• Aramco와 오랜 관계를 맺고 유전 사업 다수 수주 • 2024년 9월 Aramco 20억 달러 규모 Marjan EPCI 발주
Webuild	이탈리아	• 글로벌 토목 인프라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수주 활발 • 2024년 1월 47억 달러 규모 Trojena 댐 건설 계약 수주
Modern Building Leaders	사우디	• 2011년 설립 기업으로 최근 사업 수주 상승세 • 2024년 CEER 공장, 두바 항, 젓다 수족관 등 사업 진행
Saudi Binladin Group	사우디	• 사우디에서 가장 오래된 건설 기업 중 하나로 재기 도모 • 2024년 10월 세계 최고층 제다타워 재개 사업자로 선정
Sinopec	중국	• 중국 최대 석유화학 및 에너지 기업 중 하나 • 2024년 스페인 기업과 함께 33억 달러 아람코 사업 수주
China Harbour Engineering Company	중국	• 항만 및 인프라 전문 기업으로 사우디 진출 가속화 • 젓다센트럴, 옥사곤, 뉴무라바, 리아드 도로 등 사업 수주
El Sief Engineering Contracting	사우디	• 건설 기업으로 병원, 호텔, 엔터테인먼트 등 사업 참여 • 2024년 Qiddiya, Diriyah, NEOM 등 PIF 사업 다수 수주
Ajlan & Bros	사우디	• 사우디 기업으로 2024년 재생에너지 사업 수주 성과 • 일본 Marubeni와 1.1GW 풍력 IPP 사업 2개 수주

자료: MEED Projects, KOTRA 리아드 무역관 자체 조사

□ 프로젝트 트렌드 - 4P

- (Prioritization) 사우디 재정 여건 악화 및 시장 과열 방지를 목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프로젝트들을 우선적으로 추진. 2030년 엑스포, 2034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와 관련된 건설, 교통 인프라, 관광 관련 사업이 이에 해당
- (Privatization) 정부기관인 NCP(National Center For Privatization) 주도로 대형 사업의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예산 절감 및 사업 효율화 추진. 태양광(IPP), 수처리(IWP) 등의 인프라 사업은 물론 병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합동 발주 모델이 적용되고 있음
- (Partnership) PIF 사업들이 2030년 목표를 맞추기 위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ECI(Early Contractor Involvement) 방식의 발주가 늘면서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설계 및 시공사들의 팀 또는 컨소시엄 구성 추세

- (Positioning) 입찰 참여 기업들은 가격경쟁 심화, 공기 단축, 리스크 상승 등에 따라 자사의 경쟁력 및 수익성 분석을 통해 선별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음

〈사우디 주요 프로젝트 현황〉

국가	분야	지역	규모 (금액)	진행상황
사우디	원전	-	200억 달러	[사우디 원자력 발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1,400MW 규모 원전 2기 건설 추진 - Vision 2030 일환으로 원전 활용을 통한 전력 총당 - 현재 전력 생산의 90% 화석연료에 의존 중 • 원자력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지주회사 설립 계획('22.3월) • 예비사업자 선정('18년) 후 한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4개국에 입찰제안요청서(RFQ) 발급('22년)
사우디	교통	리아드	40억 달러	[리아드 메트로 7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5km 길이로 지하구간 47km, 지상구간 19km에 19개 역을 포함한 메트로 노선 신설 사업 • 공항, 킹살만파크, 디리아게이트, 키디야 등 현재 개발 중인 대형 관광 및 상업 구역들 연결 • PQ('24년 2월) 후 현재 제한적 입찰 초청 진행 중, 2025년 3월 제안서 제출 마감 예정
사우디	교통	리아드	300억 달러	[킹살만 국제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1억 2천만 명의 여행객 수용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 건설 사업으로, 기존 킹칼리드 국제공항 확장을 포함한 복합 개발 사업 • 57km² 부지에 6개의 평행활주로 규모의 공항과 주변 주거 및 상업 시설 등 계획 • Foster + Partners, MACE 등이 참여하며 2024년 하반기 PQ 진행 중임
사우디	건설	리아드 등	-	[스타디움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의 2034년 월드컵 유치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월드컵 경기 개최를 위한 스타디움 신설 및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진행 중 • 2034 월드컵에 15개의 스타디움을 운영 계획이며 리야드 8개, 젓다 4개, 아브하/알코바/네움 각 1개로 구성, 이 중 11개는 신설 예정 • 미국 Populous가 다수의 스타디움 설계에 참여하며 각 스타디움별로 개별 일정으로 진행 중
사우디	수소	-	-	[암모니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명 : 그린·블루 암모니아 개발 사업 - 국부펀드, 아람코, ACWA power 주도로 3건의 개발 프로젝트 검토 중 (1) 국부펀드 그린 암모니아 개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정 사업비 65억 달러로 서부 안부 - 생산 목표 : 연간 그린 암모니아 120만 톤 (2) 아람코 블루 암모니아 개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정 사업비 155억 달러로 북동부 라스 알카이즈 - 생산 목표 : 연간 블루 암모니아 1,000만 톤 (3) ACWA power 그린 암모니아 개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정 사업비 130억 달러로 서부 젓다 - 생산 목표 : 연간 그린 암모니아 300만 톤

자료: MEED, IMI, NEOM 및 Saudi Gazette, Arab News 등 현지 언론('24.8)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 한-사우디 교역 동향

- (수출) '24년 9월 누계 기준 **對사우디 수출액은 약 40억 달러로, 사우디는 튀르키예(68억 달러)에 이은 중동에서 2번째 큰 수출 대상국**
 - 對사우디 수출은 2023년 전년 대비 9.5% 상승하여 큰 폭의 성장세를 보임
- (수입) '24년 9월 누계 기준 **對사우디 수입액은 약 238억 달러로, 사우디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수입 4위 국가**
 - 對사우디 수입은 석유 및 석유 관련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국제유가에 따라 수입액의 변동폭이 클 수 있음
- (수지) '24년 9월 누계 기준 **對사우디 무역수지는 19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
 - 사우디는 한국의 원유 수입 1위 국가로, 만성적 무역적자 구조이나 최근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무역수지 개선 요인으로 작용

〈2021~2024년(9월) 한-사우디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21	2022		2023		2024.9	
	금액	금액	증감률 (전년 대비)	금액	증감률 (전년 대비)	금액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총교역	27,596	46,505	68.52	38,088	△18.10	27,823	△1.51
수출	3,325	4,865	46.32	5,325	9.46	3,979	△0.23
수입	24,271	41,640	71.56	32,763	△21.32	23,844	△1.72
수지	△20,946	△36,775	75.57	△27,438	△25.39	△19,865	△2.01

자료: KITA('24.10)

□ 對사우디 수출 현황

- 한국의 사우디 수출은 자동차(11억 달러)가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지에 현대 및 기아자동차 수요가 높으나 중국 자동차 점유율도 빠르게 상승 중
 - 이 밖에 전력용기기(6억 달러), 합성수지(1.4억 달러) 등이 주요 수출 품목
 - 발전소 및 플랜트의 유지보수 활동, 제조업 증가 등으로 전기 및 기계 관련 수출품이 많고, 프로젝트 발주 증가 영향으로 관련 기자재 수출 상승

〈對사우디 수출 상위 10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22년		2023년			2024년 1~9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1	자동차	1,324	27.21	1,524	28.62	15.11	1,120	28.15
2	전력용기기	300	6.17	456	8.56	52.00	573	14.40
3	합성수지	143	2.94	142	4.50	△0.70	136	3.42
4	고무제품	145	2.98	157	2.95	8.28	128	3.22
5	철강판	228	4.69	183	3.44	△19.74	96	2.41
6	건설광산기계	105	2.16	211	3.96	100.95	95	2.39
7	HVAC	99	2.03	193	3.62	94.95	90	2.26
8	자동차부품	76	1.56	111	2.08	46.05	79	1.99
9	원동기및펌프	101	2.08	123	2.31	21.78	77	1.94
10	기타충전기	18	0.37	56	1.05	211.11	64	1.61
10대 품목 합계		2,539	52.19	3,156	59.27	24.30	2,458	61.77
총 계		4,865	100	5,323	100	9.46	3,979	100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KITA('24.10)

□ 對사우디 수입 현황

- 한국의 사우디 수입은 대부분이 원유 수입(224억 달러, 94%)이며, 이에 사우디 수입 규모는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짐
 - 원유 외 주요 수입품은 석유제품, 화학원료, LPG 등으로 전체 비중 및 금액 작은 편

〈對 사우디 수입 상위 5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22년		2023년			2024년 1~9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1	원유	37,662	90.77	30,570	93.87	-18.83	22,377	94.08
2	석유제품	2,050	4.94	910	2.79	-55.61	578	2.43
3	정밀화학원료	570	1.37	216	0.66	-62.11	149	0.63
4	LPG	230	0.55	41	0.13	-82.17	143	0.60
5	기타석유화학제품	188	0.45	143	0.44	-23.94	137	0.58
총 계		41,640	100	32,763	100	9.46	23,844	100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KITA('24.10)

□ 한-GCC FTA 현황

• (추진 경과) 2008년 1차 협상 개시 후 2023년 12월 타결

- '08년 : 1차 협상 개시 (7월)
- '09년 : 2차 협상(3월), 3차 협상(7월)
- '10년 : GCC 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협상 중단
- '22년 : 협상 공식 재개 선언(1월) 후 총 3회(4~6차) 공식 협상 개최
- '23년 : 2회(7~8차) 공식 협상 후 2023년 12월 28일 협상 타결
-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양국 발효를 위한 절차 진행 중

• (주요 내용) 양측 모두 품목 수 기준 20년 내 관세 철폐 및 80% 이상 관세 감축

- (한국 측 양허) 품목 수 기준 89.9%, 수입액 기준 20.7% 개방
- 천연가스, 알루미늄 등 GCC 측 주력 생산품과 대추야자, 홍차 등 농·축·수산물
- (GCC 측 양허) 품목 수 기준 76.4%, 수입액 기준 20.3% 개방
- 자동차·자동차부품, 무기류, 기계류(밸브·가스터빈), 화학제품(합성수지·정밀화학) 등 한국 수출 주력 품목과 의료기기, 화장품과 같은 유망 수출 품목, 쇠고기, 인삼류, 조제 식품, 김 등의 농·축·수산물 관세 철폐 예정

〈양측의 주요 양허 품목〉

GCC 측 주요 양허 품목	카테고리	우리 측 주요 양허 품목
쌀, 종자류, 신선과일(배, 포도, 딸기 등), 무기류(권총, 박격포, 평사포, 곡사포), 분유, 화학기계(부품), 인삼류, 참깨, 원자로 부분품, 천연고무	즉시 철폐	동괴 및 스크랩, 선박, 질소비료, 합금철, 알루미늄
무기류(로켓발사기), 기타항공기부품, 합성고무(라텍스 등), 냉동참치, 금속절삭가공기, 압연기부품, 인쇄용지	5년 철폐	LPG(프로판, 부탄), 빵, 어류 기름, 기타정밀화학제품, 연료
의약품원료, 인공관절, 농약, 면류, 가열난방기(과열수보일러), 편직물, 합성수지(기타 비닐중합체) 등	10년 철폐	병커-C유, 알루미늄괴/판, 메탄올, 질소비료, 안전유리
승용차(1500cc 초과 3000cc 이하(일부)), 응급용차량(50% 감축) 엔진(가솔린, 디젤), 무기류(검류), 전기계측기, 선박용 증기터빈, 선크림, 기타광학기기	15년 철폐	천연가스(LNG), 홍차, 백시멘트
승용차(1000cc 초과 1500cc 이하(일부)), 차체, 골프용 차량, 모터, 무기류(미사일), 초음파영상진단기, 어묵, 타이어 튜브(이너튜브), 피부메이크업제품	20년 철폐	대추야자, 어육

자료: 한-GCC FTA 타결에 따른 수출 유망 품목 및 협력 기회(KOTRA, '24.5)

□ 우리 기업 수출 성공·실패 사례

• 성공 사례 및 시사점

구분	성공 사례 및 시사점
사우디아라비아	<p>A사, 사우디 통신타워용 리튬배터리 공급 PO 수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사는 코로나19로 해외 마케팅이 제약받던 2021년, 거래선 발굴 지원을 위해 KOTRA 리야트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을 신청 무역관은 현지 주요 스마트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포함된 잠재 거래선 리스트와 시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상호 협의를 진행 이어 약 3개월 뒤, 통신산업 진출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사우디 내 15,000개 이상의 통신타워를 보유하고 있는 T사 납품 전략을 수립 이후 T사에 납품할 수 있는 현지 에이전트들과 연결하였으나 한창 협의가 진행되어 샘플 발송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애로사항 발생 A사는 반복되는 어려움에 포기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T사를 방문하면서 성의와 사업 의지를 확인해주었고, 무역관의 오랜 노력 끝에 적합한 에이전트 발굴도 성공 이에 2024년 상반기 샘플 테스트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T사 벤더 등록까지 승인, 이후 연결된 에이전트사로부터 통신타워용 리튬배터리 공급 PO를 받게 됨 <p>☞ 적합한 현지 파트너사를 발굴하기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발주처 방문 상담을 지속하면서 신뢰를 구축, 적합한 파트너가 발굴되고 나서는 비교적 신속하게 성과 창출로 연결</p>

• 실패 사례 및 시사점

구분	실패 사례 및 시사점
사우디아라비아	<p>B사, 현지 정부 조달 입찰 초청을 받았으나 사기 시도로 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B사는 이메일로 사우디의 주요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초청을 받았으며,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발신인은 사우디 정부기관인 것으로 보임 한참 동안 사우디 정부 조달 사업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여 고민하던 중 연락을 받아, 의심스러운 점은 있었으나 거절하지 못함 진지하게 이메일 화신 및 온라인 등록 절차를 고민하던 과정에서 KOTRA 리야트 무역관에 해당 사이트 및 기관에 대해 문의를 하게 되었으며 무역관에서 조사 실시 무역관 확인 결과 민간 URL, 비인가 폰트 사용, 주소지 정보 부재, 등록비 요구 등 여러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고, B사는 종합적으로 상황을 검토하여 기관과 교신을 중단. 무역관이 수개월 뒤 다시 확인해보니 사이트는 사라짐 <p>☞ 기본적으로 전혀 사전 교신이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 조달 사업 참여에 초청을 받는 상황은 의심을 해볼 만함.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별도로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금전 및 개인정보 요구 등의 수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 필요</p>

나. 투자 진출

□ 한국의 對사우디 투자 동향

- 2023년 對사우디 투자는 약 5,000만 달러로, 2022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
 - 최근 현지 프로젝트 활성화에 따라 신규법인 수는 증가 추세
 - 업종별로는 과거 제조 및 건설업 일변도에서 최근에는 운수 및 창고, 정보통신, 금융,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로 다변화 추세
 - 2025년 발효되는 개정 외국인투자법 및 사우디 정부의 FDI 확대 의지에 따라 투자 환경 지속 개선 중으로, 사우디 투자 진출 확대 기대

〈'19~'24년 1H 한국의 對사우디 투자 동향〉

연도	투자신고(건)	신규법인(개)	신고금액(백만 달러)	투자금액(백만 달러)
2019	30	4	181	171
2020	32	7	102	69
2021	20	4	120	51
2022	33	7	111	112
2023	42	12	63	50
2024 1H	21	6	50	56
누계*	976	285	6,053	5,651

주: 누계 실적은 1968~2023년 누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4.10)

〈對사우디 업종별 투자 금액〉

(단위: 백만 달러)

업종 분류	2020	2021	2022	2023	2024.1H
제조업	30	26	83	39	16
건설업	31	3	14	3	5
숙박 및 음식점업	4	3	5	0	0
부동산업	0	8	0	0	1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0	0	5	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	0	0	0	0
금융 및 보험업	0	12	0	0	15
도매 및 소매업	0	10	0	0	1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	0	2	12	0
운수 및 창고업	0	0	0	3	7
정보통신업	0	0	0	2	0
합계	69	51	112	50	5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4.10)

□ 우리 기업 투자 성공·실패 사례

• 성공 사례 및 시사점

구분	성공 사례 및 시사점
사우디아라비아	<p>K사, 사우디 조기 진출 및 현지화 노력으로 대형 상하수도 프로젝트 수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사는 국내외에서 엔지니어링 역량을 인정받는 기업으로, 한국에서 사우디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전 자체적인 시장조사를 통하여 전략 수립 • 2022년부터 수차례 사우디 출장을 시행하면서 현장조사를 하였고, KOTRA 리야드 무역관을 통해 현지 진출 기업, 정부기관 등을 소개받으며 종합적으로 면밀한 분석 실시 • 시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구체적으로 수주 목표 사업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벤더 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 현지 진출도 이 과정의 일환으로 결정 • 현지 진출 과정 역시 사우디 투자 환경 및 행정 처리 등에 대한 시장조사의 기회로 보고 직접 전 과정을 밟으면서 인내심을 갖고 진행하며 KOTRA 등 적극 활용 • 무역관에서는 진출 과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우디 투자부에 패스트 트랙(fast-track) 진행을 요청하고, 관련 정부기관 및 발주처들을 향한 초청하며 K사와 연결하고, 현지 RHQ 정책 웨비나 개최 초청 등 지원활동 진행 • K사는 사우디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찌감치 현지 진출 결단을 내리고, 발주처 관리에 신경 쓰면서 2024년부터 대형 사업 수주 성과 창출 중 <p>☞ 사우디 시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철저한 현장 실사 및 뚜렷한 사업 전략을 기반으로 투자 진출을 결정하고 신속하게 이행한 것이 성과로 연결됨. KOTRA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한 다각적 분석 실시가 도움됨</p>

• 실패 사례 및 시사점

구분	실패 사례 및 시사점
사우디아라비아	<p>D사, 사우디 프로젝트 시장 매력에 현지 진출 시도하였으나 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사는 건설 기자재 제조가 주 사업 영역이며 무역업도 일부 관여하고 있음. 그동안 사우디가 언론에 많이 소개되고 기회가 많을 것 같아 전시회에 참관 출장을 와보고 일부 기업들과 상담을 해보고는 투자 진출을 결심 • 첫 단계로 관련 사우디 정부기관과도 접촉을 해보고 공장 인수를 위해 산업단지도 접촉을 하였으나 면담을 잡기도 어렵고 필요한 정보를 받기가 어려움 • 인터넷 조사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체감되는 장벽이 높고, 실무 단계로 들어갈수록 정보 부족, 영어 소통 제한 등을 실감하고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현지 지사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매우 높음을 알게 되어 진출 포기 <p>☞ 사우디는 전 세계적으로 현지 진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실무적 단계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 진출의 필요성이 확실한 상황에서 인내심을 갖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p>

다. 협력 유망 분야

□ 한-사우디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 사우디의 Vision 2030 국가 발전 전략에 한국은 전략적 동반자 입장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양국 간의 공감대 형성. 2017년에는 ‘한-사우디 Vision 2030 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2022년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한-사우디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 창립을 추진 중에 있음
- 그동안 양국 간의 정상 방문 및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공동 성명 등을 통해 다양한 협력 분야를 상호 협의 하에 발굴하여 관련 사업이 진행 중

〈한-사우디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분야	협력 배경	협력 방안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는 한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 • 석유화학 및 탄화수소 자원화 추진 • 사우디 재생에너지 및 수소 사업 본격화 • 사우디 원전 1단계 사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 협력 • 사한 등 상호투자 협력 사업 확대 • 기술 교류 및 에너지 교역 협력 • 경제외교 기반 협력 모델 추진
기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사우디 파리 협정 체결국 • 사우디 Saudi Green Initiative 추진 • 청정에너지 전환에 금융 및 투자 중요 • 사우디 재활용·폐기물 관리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 재활용, 녹지화 등 분야 교류 확대 • 국제기금 활용 협력 사업 추진 • 한국의 환경기술 노하우 전수
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고조 • 항구 등 인프라 시설 감시 중요성 증가 • 사우디의 국방산업 국산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대응 및 테러 방지 협력 • 관련 기술 보유 기업 간 교류 확대 • 한국 방산기업 현지 진출 공동 지원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부펀드 및 정부 추진 건설 사업 다대 • 교통, 수처리, 제조 인프라 확충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기업들의 사업 참여 확대 지원 • 인프라 분야 협력 정보 교류 증진
문화·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 ‘활기찬 사회’ 구현 목표 •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고도화 • 사우디 관광산업 육성 다방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K컬처, 한류 교류 확대 • 교육 시스템, 에듀테크 분야 협력 • 양국 간 관광 활성화 지원
지식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 산업화에 따른 IP 중요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분야 지식 전수 및 인력 교류
스마트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 농업 현대화 및 효율화 추진 • 스마트팜 시범사업 시행 단계 돌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관련 정부 협력 사업 추진 • 한-사우디 스마트팜 시범사업 추진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 스타트업 투자 유치 중동 최대 • 전자상거래, 핀테크, 물류 등 창업 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스타트업 사우디 진출 공동 지원 • 한국 상품 및 플랫폼과의 협력 확대

□ 한-사우디 기업 간 협력 유망 분야

- **(석유가스) 사우디 Aramco는 기존 석유가스 인프라의 확충 및 유지보수는 물론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생산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기술 협력, 프로젝트 수행, 기자재 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
 - Aramco가 최대 주주인 에쓰오일은 Aramco의 투자로 국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인 '샤힌(Shaheen) 프로젝트' 진행 중
 - 이 외에도 현지 벤더를 통한 기자재 납품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으며, AI 및 디지털 기술 등 신사업 분야에서도 협력 기회가 있음
- **(전력 발전)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전력 수요는 급증하는 한편,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로 에너지 사업은 수년간 프로젝트 수주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며 사업 참여 기회 다대**
 - 태양광, 풍력 발전 기자재에 대한 현지 수요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EPC 기업들을 통한 기자재 납품 또는 현지 진출을 통한 현지 공급망 구축 등 가능
- **(모빌리티) 사우디 서부 KAEC 지역에 전기차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Lucid, CEER, 현대차 등의 자동차 생산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부품 공급, IT 솔루션 제공, 차량 관련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 사업 기회 발생**
 - 신영은 2024년 7월 사우디 전기차 CEER에 핵심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
- **(스마트 인프라) 사우디 정부의 디지털화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팜 등의 사업 기회가 늘고 있음. 사우디에는 재해 방지, 교통 체증, 물 부족 등 실제 스마트 기술로 개선할 수 있는 현안들 다수 산재**
 - 네이버는 2024년 사우디에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사업' 본격 착수
 - 농심 등은 2024년 7월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사우디 스마트팜 사업 협약 체결
 - 안랩은 2024년 10월 사우디 SITE와 JV 설립을 완료하고 사이버 보안 시장 공략
- **(소비재) 사우디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어 소비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음**
 - 한국의 화장품, 식품 등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대형 마트 등에 진입 중
 - 또한 최근 한식을 테마로 한 식당 개업이 늘고 있으며 대체로 반응이 좋음
- **(문화 콘텐츠) 사우디는 관광산업 육성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관심과 우호도가 높아 한류를 활용한 사업 유망**
 - CJ의 KCON 개최, 젠지의 e스포츠 월드컵 참여 등 문화교류 증가

※ 사우디아라비아는 Vision 2030이 추구하는 국가 발전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노동 참여, 여가 활동 증가 등 사회적 개혁으로 인한 비석유 부문 활동 증가와 함께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1. PEST 분석

<p>Political 정치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정 체제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안정적으로 개혁 진행 중 • 모든 정부 계획 및 정책이 Vision 2030 실현 수단 • 자국 이익 추구를 우선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외교 확대 • 시장 개방으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100% 소유 가능 •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창업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 • 사우디인 고용 의무화(Saudization)를 통한 자국민 일자리 창출 • 글로벌 기업들의 중동지역본부(RHQ) 유치 정책 시행
<p>Economic 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률(IMF, 10월): ('23) -0.8% → ('24) 1.5% → ('25) 4.6% • 소비자물가(IMF, 10월): ('23) 2.3% → ('24) 1.7% → ('25) 1.9% • 경상수지(IMF, 10월): ('23) 3.2% → ('24) 0.4% → ('25) -1.8% • 비석유 부문(관광, 엔터테인먼트, 교통물류, 제조업 포함) 최근 3년간 평균 5.8% 성장(사우디 재무부) • 비석유 부문 2023년 GDP의 50% 기록(역대 최대) • 유효 투자 라이선스: ('21) 8천 → ('24.1분기) 3만 이상 • 총 공장 수(산업광물자원부): 2023년 기준 11,549개
<p>Social 사회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인 30세 미만 인구가 62% 이상으로, 젊은 소비시장 • 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일부다처제 및 자녀 감소 추세 • 사우디 여성 노동참여율 35% 이상으로 Vision 2030 목표(30%) 조기 달성 • 2018년에 여성 운전 허용, 영화관 35년 만의 금지 해제 등 변화 시작 후 현재 공연·엔터테인먼트 행사 등 활발(보수적인 분위기는 유지) • 2019년 관광비자 발급을 시작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 • 이슬람 중주국으로 라마단, 이드 등 근무 영향, 주말 금/토 시행 • 야행성 문화로 전시회(오후 4~10시) 등 사회 전반 영향 • 중동 지정학적 갈등 심화에 親팔레스타인 분위기 고조
<p>Technological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전기전자 투자 기업 ALAT 설립 등 기술 투자 확대 • AI, 사이버 보안, 스마트 시티 등과 관련된 국제행사 주관 • 석유가스, 재생에너지, 폐기물 관리 등 인프라 사업 신기술 접목 • 핀테크와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앞세워 사우디는 MENA 지역에서 VC 투자액 최다 국가(Magnitt 2024년 상반기 보고서) • 사우디 내 인터넷 사용률은 99%이며 1인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44GB 기록(Saudi Internet Report 2023)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강 점(Strength)

- 건설 프로젝트 역량 및 해외 레퍼런스 우수
- 발전, 수처리 등 인프라 사업 기술경쟁력
- 한류로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입증
- 소비재의 경우 채널 다변화 경험 풍부
- 정부 간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약 점(Weakness)

- 설계·디자인 등 글로벌 기업 선점
-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 상대적 어려움
-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취약
- 합작·단독 진출 등 현지 투자에 보수적
- 통합 솔루션 제공보다는 일부 분야 집중

기 회(Opportunity)

- PIF 산하 발주처별 대형 프로젝트 증가
- 엔터테인먼트 등 삶의 질 향상 사업 확대
- 재생에너지, 전기차, 조선, 철도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이 있는 분야 사업 기회 증가
- 한국에 대한 관심 및 선호도 높음

위 험(Threat)

- 로컬라이제이션(현지생산) 요구 강화 추세
- 현지 진출, 저가 수주 기반 국제경쟁 심화
- 프로젝트 수주 사후 리스크 존재
- 정부 발주처 또는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사업 속도, 상품 디자인 등)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전력 발전, 수처리 등 인프라 사업에 기술력 및 글로벌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수주 추진 •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 사우디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에 한류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 또는 솔루션 제공 	고속 성장 분야 공략 (Q.U.E.S.T)
ST 전략 (차별화 전략-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력을 갖춘 교통물류, 전기차,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에서 현지 파트너사와 JV를 비롯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시장 공략 	컨소시엄 등을 통한 패키지화
WO 전략 (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 성장하는 분야 위주로 글로벌 기업 및 경쟁국이 선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인프라 건설, IT 솔루션 제공 등 기회 포착 	고급화·차별화로 가격경쟁력 극복
WT 전략 (방어/철수-위협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에 대한 세계 관심이 높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컨소시엄 구성 및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경쟁력 확보 	기술력, 한류 등으로 기회 선점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Quality of Life (삶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과 관련된 사업 기회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건축재정의 영향을 덜 받고 사우디 정부 의지 높음 • (산업)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게임, 놀이시설, 의료, 교육 • (기회) 스타디움 건설, 축제 운영, 공원 조경, 대회 참가 등 • (방안) 한류를 활용한 차별화 콘텐츠 또는 기술 기반 진출
Urbanization (도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격한 도시화에서 발생하는 인프라 및 서비스 갭 공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리야드를 중심으로 인구 급증에 따라 인프라 및 서비스 수요 폭발 • (산업) 주택, 상업시설, 보안, 방재, 전자상거래, 프랜차이즈 • (기회) 중장비, 건설 기자재, 인테리어, HVAC, CCTV, 화장품, 식품 등 • (방안) 고급화, 렌탈화, 채널 다변화 등 전략으로 낮은 가격경쟁력 극복
Energy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 중립 실현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2060년 탄소 중립 목표로 재생에너지 발전소 발주 본격화 • (산업) 복합화력, 태양력, 풍력, 수소, 원전, LTC(liquid to chemicals) • (기회) 발전 기자재, 발전소 EPC, IPP, PV 패널, 풍력 타워 등 • (방안) 프로젝트 전문성 및 글로벌 기술력을 기반으로 사업 기회 선점
Smart Tech (스마트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농업, 물류 등 산업 전반의 스마트 인프라 전환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글로벌 현안 선점 및 선진국 입지 강화 위한 공격적 투자 • (산업)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모빌리티, 스마트 의료, 방산 • (기회) 디지털 트윈, 수직농장, 철도, 전기차, 의료기기, 무기류 등 • (방안) 컨소시엄 등 협력 구축을 통한 패키지화로 통합 솔루션 제안
Tourism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 기가 프로젝트 등 관광 관련 국부펀드 사업 기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초대형 '기가 프로젝트' 대부분이 관광산업 육성 관련 사업 • (산업) 건설업, 숙박업, 요식업, 관광 관련 서비스업, 문화공연 • (기회) 호텔 및 리조트 건설, 건설 및 관광 IT 서비스, 공연 • (방안) 전력, 하수 처리 등 인프라 시설 및 운영 단계 솔루션 기회 공략
지속 가능 진출전략	사우디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실천

3-1. 국민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과 관련된 사업 기회 발굴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사우디인 30세 미만 인구가 62% 이상으로 '삶의 질'은 리더십과 연결되는 핵심 정책 분야
- 사우디 재무부는 2025년 예산안에 지출 효율화를 강조하면서도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할 것 확인
- 여성 인권 신장, 종교경찰 폐지 등의 사회 개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로 놀라운 속도로 발전 중
- 스타트업 등 민간 부문에서의 참여가 수월한 분야로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 발휘 가능성 무궁무진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정부기관들이 주도적으로 매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행사를 진행**
 - General Entertainment Authority(GEA)는 대표적으로 매년 겨울 Riyadh Season을 주관하는데, 제5회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진행됨
 - Saudi Esports Federation은 2024년 7월 3일~8월 25일 제1회 Esports World Cup을 개최하여 200개 클럽에서 1,500명의 선수들이 6천만 달러 상금 경쟁
- **2034년 월드컵 유치 및 스포츠 클럽 투자 활성화 노력**
 - 사우디 정부는 2024년 7월 단독 후보로 2034년 월드컵 개최를 신청하였으며, 11개의 신설 스타디움을 포함하여 15개 스타디움 활용 계획 발표
 - PIF가 2021년 설립한 LIV 골프는 그동안 세 번의 시즌 모두 젓다에서 개최했으나, 4회 대회는 2025년 2월 최초로 리야드에서 개최 예정
 - 체육부는 2024년 7월 6개 스포츠 클럽 민영화 입찰을 공고하며 투자 활성화 시도
- **놀이 및 문화 시설 인프라 투자 활발한 가운데 일부 완공 임박**
 - Qiddiya 내 테마파크 2개(Six Flags, Aquarabia) 2025년 개관 목표
 - 세계 최대 규모 도심공원 King Salman Park 2025년 개관 목표
 - Sports Boulevard 사업 일환으로 Global Sports Tower 건설 계획 발표('24.7월)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유망 품목) 체육 또는 문화 시설 건설부터 K-POP 공연, e스포츠 대회 참가까지 사업 기회 유형이 다양하여 기자재 등의 상품 수출은 물론 문화 콘텐츠와 같은 무형물 수출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음
- (진출전략)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공연, 게임 등의 분야에서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음. 다만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된 브랜드에 선호도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 우수한 콘텐츠 또는 기술을 기반으로 파트너사 발굴 필요

3-2. 급격한 도시화에서 발생하는 인프라 및 서비스 갭 공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사우디 2022년 인구 통계 조사에서 사우디 인구는 직전 조사 2010년 대비 34.2% 성장
- 리야드는 2033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15대 도시에 포함 (Savills Growth Hubs Index)
- 리야드를 중심으로 급격히 유입되는 인구에 건설, 도소매, 서비스 등 동반 성장 추세 확인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리야드로 급격한 인구 유입에 인프라 부족 현상 발생**
 - 다른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아 리야드로 오는 내국인과 현지 진출하는 외국인들로 리야드에 주택 및 생활물가가 상승하고 교통 체증이 심화
 - 최근 1~2년간 주택 임차료가 수십 퍼센트 상승한 사례들이 많고, 이에 사우디 언론은 이례적으로 비판적인 기사를 내면서 정부의 조속한 조치 요청
- **주택 및 상업 시설 건설, 도로 확장 등 인프라 발주 한창**
 - 리야드시는 2024년 35억 달러 규모의 도로 확장 계획을 발표
 - 리야드에는 고급 쇼핑몰 Via Riyadh가 2024년 새로 개관하고, The Avenues, Diriyah Square 등 초대형 쇼핑몰들이 공사 중이며 고급화 추세
 - PIF 부동산 개발회사인 ROSHN은 2024년 5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 중이었으며, 리야드를 시작으로 젓다, 메카, 다란 등의 전국 주요 도시에서 주택 사업 시작
- **전자상거래 및 프랜차이즈 진출 활성화**
 - 2024년에는 NiceOne(화장품 전문몰)의 상장 준비와 Salla(커머스 플랫폼)의 중동 스타트업 중 최대 투자 유치(1.3억 달러) 등 이커머스 투자 활동이 활발해짐
 - Gongcha(카페), Christies(경매), Pret a Manger(카페), Spinneys(슈퍼마켓) 등의 브랜드들이 2024년 사우디에 오픈을 했거나 진출 계획을 밝힘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유망 품목) 주택 및 상업 시설 건설을 위해 중장비는 물론 인테리어 및 주방용품, HVAC, CCTV 등의 수요가 많음. 전자상거래 판매용 소비재는 특히 한류 영향으로 관심이 많음.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 진출도 유망
- (진출전략) 사우디 시장은 산업 불문 가격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에 국내 기업들이 고전하는 경우가 많음. 타깃 고객층, 판매 방식, 채널 선택 등에서 차별점을 찾아 가격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 확보가 중요

3-3. 탄소 중립 실현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업 참여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Saudi Green Initiative(SGI)를 앞세워 206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 Aramco, 석유화학 생산, 가스 활용, 수소 발전 등 원유 생산 외 다운스트림 역량 강화 추진
- 사우디 에너지부, 2030년까지 매년 20GW 재생에너지 추가로 총 130GW 달성 계획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기존 석유가스·석유화학 시설의 현대화 및 확장 사업 구체화**
 - Aramco는 '24~'26년 지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3년 동안 총 99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석유가스·화학 58개, 송유관 22개, 인프라 19개)
 - 또한 Aramco는 2030년까지 400만 b/d의 원유를 석유화학 상품화할 계획이고, 기존 유전의 확장 및 현대화를 위한 Master Gas System 사업도 진행 중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본격화 및 탄소 저감 정책사업 활성화 추세**
 - 사우디 전력조달공사(SPPC)는 2024년 내 총 7.2GW 규모의 4개 태양광 IPP와 4개의 가스 화력 발전 사업의 사업자 선정이 예상되며, 2025년에는 재생에너지 6차 사업으로 4.5GW 규모의 1개 풍력, 4개 태양광 발전 사업 발주 예정
 - Saudi Green Initiative(SGI) 정책으로 주요 에너지 사업에 탄소 포집 기술을 적용하고 공원 조성 및 녹지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 중
- **수소 에너지 및 배터리 저장 장치(BESS) 신사업 분야 급성장 중**
 - PIF는 2024년 4분기에 Energy Solutions Company(ESC)를 설립하고 Aramco와 공동으로 그린 수소 및 블루 수소의 생산, 보관, 운송, 마케팅 등 추진
 - 2024년 사우디 Aljihaz Holding이 8억 달러 규모의 전력청 BESS 사업을 수주하고, 중국 Hithium사가 BESS 제조를 위해 JV를 설립하는 등 움직임 활발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유망 품목) 기존의 발전소 EPC 및 전력 기자재 외에도 PV 패널, 풍력 타워 등 재생에너지 관련 품목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또한 물 절약, 에너지 효율성 제고, 조경 및 녹지화 관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 (진출전략) 그동안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은 시공 기술 또는 기자재를 앞세워 사업 기회 선점 필요. 에너지 분야는 발주처들의 최저가 위주 낙찰, 로컬 콘텐츠 우대 등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략 수립 필요

3-4. 도시, 농업, 물류 등 산업 전반의 스마트 인프라 전환 방안 제시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UN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EGDI) 2024에서 4위 기록 (25위 상승)
- UN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2024년 14위 기록 (중동 1위)
- IMD의 '2024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서 Cybersecurity Index 세계 1위 기록
- 철도, 메트로 등 교통물류 사업 발주 본격화 및 스마트팜 시범사업 도입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스마트 시티 분야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국제행사 개최**
 - 그동안 데이터시청(SDAIA)과 주택부(MOMRAH) 등이 스마트 시티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였으며, 조금씩 구체적인 로드맵이 공개되고 있는 추세
 - 이 외에 2024년에는 SDAIA 주관 Global Smart City Forum, DMG 주관 Smart Cities Saudi 전시회 등이 최초 개최되면서 글로벌 활동 본격화
 - 2024년에는 네이버와 안랩이 사우디 사업 착수 및 JV 형성 등의 진전이 있음
- **물 사용 효율화 및 고품질 식품 공급 대안으로 스마트팜 기술 검토 본격화**
 - 사우디 환경수자원농업부(MEWA)와 국책연구기관 Estidamah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시범사업들이 주정부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민간 사업도 늘고 있음
 - 2024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및 농심 등의 컨소시엄은 사우디아라비아에 한국형 스마트팜 시범 온실 조성 및 운영 사업 착수를 발표
- **사우디 국내 및 주변국 연결 철도 프로젝트 등 교통 물류 사업 가시화**
 - 2024년에는 리야드 메트로가 개통되면서 역세권 개발도 유망해짐. 이와 별도로 핵심 관광지를 연결할 7호선에 대한 신규 계획을 발표하고 입찰 진행 중
 - 이 외에도 2024년에는 사우디 동·서부를 연결하는 Landbridge 고속철 사업과 GCC 국가 간 철도 연결 사업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활동 증가 예상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유망 품목) 사우디는 현재 정부 부처는 물론 PIF와 Aramco 등 전 국가기관들이 디지털화를 내세우고 있어 디지털 트윈, 수직농장, 철도, 전기차, 의료기기, 무기류 등 전 산업군에 걸쳐 스마트화 관련 기술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진출전략) 해당 분야는 발주처들도 대체로 신규 사업이기에 단편적인 기술로는 접근이 어렵고, 컨소시엄 등 협력 구축을 통한 패키지화로 통합 솔루션을 제안해야 하며 글로벌 레퍼런스 등으로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

3-5. 사우디 기가 프로젝트 등 관광 관련 국부펀드 사업 기회 활용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사우디 PIF 추진 5대 기가 프로젝트 중 4개가 관광 관련(NEOM, Qiddiya, Red Sea, Diriyah)
- National Tourism Strategy로 2030년까지 매년 1.5억 명의 관광객 유치 목표
- 사우디 Tourism Development Fund, 2020년 설립 이래 350억 리알 상당 100개 이상 프로젝트에 투자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PIF 추진 기가 프로젝트, 건설에서 운영 단계로 전환 시작

- Red Sea Global은 2024년까지 5개의 호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5년에는 Red Sea와 Amaala 두 지역에 19개 호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음
- Diriyah는 2024년 유럽 기업들과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에도 North Cultural District, Wadi Safar 등의 자산 개발 예정
- Qiddiya는 월드컵 경기장, 공연예술센터, 드래곤볼 테마파크 등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으며, 25개의 e스포츠 구단 수용 단지 등의 자산 운영 면에서 협의 진행 중
- NEOM은 2024년 6월 아카바 만 120km를 따라 12개의 관광지를 개발하는 Magna 사업을 공식 발표하고 Hyatt와 리조트 협약을 맺는 등의 진전

• 성지 순례 및 천연자원을 성장 동력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 노력 확대

- 사우디는 매년 성지 순례 방문객 유입이 보장되어 있으며, 2024년에는 전기스쿠터 허용, 로봇 가이드 도입 등 현대화 추진. 2025년에는 1,500만 명 Umrah 방문객 예상
- 산악 지대에 위치한 Asir주, 자연경관과 기후가 좋아 글로벌 관광지로 개발 중이며, 2024년 Soudah Peaks 프로젝트 PQ를 진행하면서 사업 본격화

•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규제 정비 및 교육 강화

- 사우디 정부는 홍해에 요트 운항을 위한 규정을 발표('24.9월)하고, 관광 관련 투자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광업 종사자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정부 활동 증가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유망 품목) 상당수의 관광 사업이 신규 프로젝트로, 건설은 물론 전력 및 수처리 등의 인프라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또한 사우디 정부가 문화유산 자원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나 관광 콘텐츠 개발 역시 수요가 높은 분야
- (진출전략) 각 발주처별로 사업 단계 및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벤더 등록 및 대면 네트워킹 등을 통하여 사업 기회 발굴 필요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자동차부품	선정사유	완성차 기준 한국의 對사우디 수출 1위 품목 지리적·기후적 특성상 수리용 부품 수요 높음
	시장동향	국제유가 고점 유지에 따라 내수시장 수요 증가
	경쟁동향	일본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입 점유율 1위 독일, 중국, 미국이 2~4위 기록
	진출방안	거친 도로 사정 및 운전 습관, 더운 날씨로 브레이크패드, 에어컨 등 부품의 정기적 교체 수요 발생하여 소비자 및 현지 딜러 에이전트 대상 맞춤형 마케팅 필요
품목명 2		
건설 기자재	선정사유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기자재 수요 지속
	시장동향	고유가 기저가 지속되고 대규모 프로젝트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시장 내 중장비 및 건설기계, 부품 등 수요 지속
	경쟁동향	중국이 전체 수입시장의 1/3 수준 차지 미국, 독일, 이탈리아가 2~4위 기록
	진출방안	일반 기계 등 기자재는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이 앞서기 때문에 기능성 및 특수 기자재 위주로 현지 수요 발굴 및 바이어 대응 필요
품목명 3		
조선 기자재	선정사유	2024년 완공이 예상되는 조선소 내 VLCC 건조를 위한 기자재 수요 급증 전망
	시장동향	킹 살만 조선소가 당초 계획 대비 2년 지연되어 2024년 완공 및 바로 VLCC 건조 예정
	경쟁동향	글로벌 조선사 및 조선 기자재 부품사 경쟁 예상
	진출방안	단순 제품 수출로는 현지화 프로그램 미충족 및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므로 현지 생산공장 투자 또는 동반 진출 검토 필요
품목명 4		
철강제품	선정사유	1. 다수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 2. 한국의 對사우디 수출 주요 품목
	시장동향	글로벌 원자재 가격 등락 심화와 수급 불균형 있으나, 꾸준한 내수시장 수요 바탕으로 진출 필요
	경쟁동향	1. 중국이 전체 수입시장의 20% 수준 차지 2. 제3국산 철강 품질 개선으로 경쟁 심화
	진출방안	안정적인 수요처 및 대금 결제방법 확보 필요
품목명 5		
수소 인프라	선정사유	정부 주도 수소산업 육성에 따른 수요 증가 전망
	시장동향	현재는 완전 초기 단계로 NEOM 시범 도입 진행 중
	경쟁동향	수소 인프라의 경우 개발 단계여서 시장 선점 및 확보가 주요할 것으로 전망
	진출방안	정부 간 협력사업 또는 동반 진출 추진

품목명 6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선정사유	국가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58.7GW 발전 목표 대응 위한 인프라 수요 전망
	시장동향	복수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 증으로 일부 프로젝트 완공 및 가동 개시
	경쟁동향	글로벌 에너지기업 각축전 전망
	진출방안	태양광 패널 등 일반 소모품은 중국산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므로, 에너지 관리 솔루션이나 기능성 제품 위주 수출 타진 필요
품목명 7		
수송기계 (자동차, 선박)	선정사유	완성차 및 선박 포함 한국의 對사우디 수출 1위 물동량 지속 증가에 따라 기존 자동차 외 화물선 수요 급증
	시장동향	내수시장 회복 및 국가 무역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품목 전반적인 수요 지속 증가 전망
	경쟁동향	자동차의 경우 Hyundai가 일본 Toyota에 이어 시장 내 M/S 2위 차지 중국산 자동차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상당히 빠르게 시장점유율 증가 추세
	진출방안	자동차의 경우 현지 단순 마케팅보다는 딜러 에이전트를 통한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이 주효하며, 선박 등 B2B 제품은 바이어 수요 적시 대응 통한 거래 유지 필요
품목명 8		
주택 기자재	선정사유	VISION 2030 하에 주택보유율 70% 달성을 위해 주택 공급 프로젝트 활성화 공공/민간 프로젝트 병행 추진 중이며 빌라, 아파트 등 현지 주택 유형별 건설 추진
	시장동향	대부분 현지 건설사 주도로 추진되고 결정권이 소비자가 아닌 시행사에 있어 대부분 로컬 기자재가 이용되며 일부 기능성 제품은 수입 증가 추세
	경쟁동향	로컬 주택 기자재가 대부분 사용되며 소모품은 주로 중국산 저가 제품 이용
	진출방안	기능적·가격적으로 차별화 및 현지 주택개발사 및 ROSHN 등 공기업 대상 마케팅 필요
품목명 9		
기초화장품	선정사유	드라마, K-POP 영향으로 한국 제품 선호 지속
	시장동향	1. 현지 제조 기반 없어 대부분 수입 의존 2. 젊은 층은 인플루언서 통한 구매 확장
	경쟁동향	선진국 브랜드가 시장 주도
	진출방안	포지셔닝 및 차별화된 마케팅 필요
품목명 10		
즉석식품	선정사유	하이퍼마켓 내 한국 라면, 떡볶이 등 식품 증가
	시장동향	현지 대형 업체 필두로 자체 브랜드 출시 증가
	경쟁동향	유럽, 미국과 더불어 동남아 제품 시장 장악
	진출방안	현지 OEM 통한 자연스러운 현지화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건설/플랜트	선정사유	1. 국제유가 회복 이후 프로젝트 시장 활성화 2. 과거부터 국내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
	시장동향	도시 개발 프로젝트 및 플랜트 발주 확장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및 병원, 메디컬 시티 설립 등 특수 목적 프로젝트 추진
	경쟁동향	글로벌 건설사 및 시행사 각축전 지속
	진출방안	기업별 최적화된 기능에 더하여 컨소시엄 형태 진출로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극대화 네트워킹 통해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현행화 필요
품목명 2		
의료	선정사유	보건헬스 기술 개발 및 현지 임상시험·시스템 정착 위한 사우디 정부의 협업 의향 높음 의약품 현지 생산 포트폴리오 확대 의향 높음
	시장동향	일부 글로벌 제약사들은 현지 합작 생산 진행 중 선진 의료기기 및 시스템 도입 활발
	경쟁동향	정부 주도로 화이자, 안센 등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 프로젝트 MOU 체결
	진출방안	공동 임상 및 기술 수출 등 소프트웨어 차원의 협력 통해 초기 리스크 최소화 가능 현지 합작 생산, 라이선싱 아웃 등 다각화 필요
품목명 3		
콘텐츠	선정사유	보유 자원의 콘텐츠화 추진 및 콘텐츠 도입 활성화
	시장동향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공연 및 프로그램 수입, 현지화 추진
	경쟁동향	대규모 놀이동산, 축제문화 등 위주로 논의
	진출방안	K-POP 등 공연과 문화자원의 콘텐츠화 등 현지화 협의를 통한 현지 도입 추진
품목명 4		
관광	선정사유	관광지 개발 사업 및 레저 프로젝트 개발 주력
	시장동향	알울라(AiUla) 주력으로 한 관광상품 홍보
	경쟁동향	외국인 관광 서비스업은 아직 생소하며, 다만 가이드 상품 등은 점차 증가 추세
	진출방안	양국 간 관광산업 및 관광상품 교류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다양한 코스의 상품을 개발할 가능성 증대
품목명 5		
교육	선정사유	기본교육, 직업교육 등 진출 가능 분야 다대
	시장동향	1. 정부 주도로 기본교육 시스템 강화 2. 직업교육 시스템 정착 위해 국제협력 지속
	경쟁동향	학교 간 협업의 경우 유럽 국가와 경험 다대
	진출방안	교육로봇·드론, 시스템 위주의 강점 분야로 진출 논의 필요

품목명 6		
금융	선정사유	금융 디지털화에 따른 사우디 금융 시장의 혁신 수요 증가
	시장동향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빠른 확산과 정부의 Vision 2030 추진에 따른 금융 서비스 개혁
	경쟁동향	글로벌 및 지역 핀테크 기업들의 적극적 진출과 사우디 내 기존 은행들의 디지털 전환 경쟁
	진출방안	현지 규제 준수 및 현지화된 디지털 금융 솔루션 제공을 통한 시장 공략
품목명 7		
SW	선정사유	사우디 디지털 경제 구축과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
	시장동향	클라우드 컴퓨팅, AI, 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소프트웨어 도입 확산
	경쟁동향	글로벌 IT 기업의 진출 및 현지 스타트업과의 경쟁 심화
	진출방안	사우디 현지 파트너십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및 기술 협력 강화
품목명 8		
물류	선정사유	중동-아프리카-유럽을 잇는 물류 허브로서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위치
	시장동향	전자상거래 및 해외 무역 증가로 인한 물류 서비스 수요 급증
	경쟁동향	글로벌 물류 기업들의 네트워크 확장 및 현지 물류 인프라 개발 경쟁
	진출방안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과 현지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차별화 전략

첨부 3

'25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건설 기자재 시장 기회 모색	• 2025 리야드 Big 5 건축 전시회 한국 국가관 운영	1분기(2월 15~18일)/리야드
기계·플랜트 기자재 수출 강화	• 2025 중동 기계부품 무역사절단 - (지자체 통합) 두바이·도하 경유	2분기(5월)/리야드
건설 기자재 수출 강화	• 2025 중동 건설기계 플랜트 무역사절단 - 동부 담맘 지역	3분기/담맘
에너지/전력 기자재 시장 진출 지원	• 2025 탄소 중립(Net-Zero) 온라인 상담회 - (지자체 통합) 이스탄불·쿠웨이트 오프라인 무역사절단 행사 연계	4분기(10월)/온라인
스마트 시티 시장 진출 확대	• 2025 중동 스마트 시티 로드쇼	4분기/리야드

첨부 4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해당 사항 없음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개정 투자법 시행 (외국인투자법)	2025년 2월	
사우디-파키스탄 FTA 협상 완료	2025년 하반기	
GCC-중국 FTA 협상 완료	2025년 하반기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장소)	비고
Big 5 Saudi	2025.2월 (리야드)	건축 기자재
Saudi LEAP	2025.3월 (리야드)	ICT, 기술
Automechanika Riyadh	2025.4월 (리야드)	자동차부품
Saudi Entertainment and Amusement Expo (SEA)	2025.5월 (리야드)	엔터테인먼트
Saudi PPPP (Plastics&Petrochem, Print&Pack)	2025.5월 (리야드)	플라스틱, 석유화학, 포장 등
Saudi Infrastructure Expo	2025.9월 (리야드)	플랜트, 인프라
Index Saudi	2025.9월 (리야드)	건축 기자재
GAIN Summit	2025.9월 (리야드)	AI
Saudi Build	2025.10월 (리야드)	건축 기자재
Saudi Agriculture	2025.9월 (리야드)	농업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연승환	부장	리야드 무역관	+966-11-513-8474	yeon@kotra.or.kr
2	장성원	과장	리야드 무역관	+966-11-513-8471	tradejang@kotra.or.kr

2025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SBN : 979-11-402-1232-3 [95320]